



時計塔

SIGETOP



2011년 7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8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516) 365-5500 • Fax: (516) 365-5501

발행인: 文大鈺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盧在煜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就任辭

신임회장 문 대 옥 (73)

"미주 의대 동창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글쎄 많은 동문들은 은퇴하시게 되고 게다가 미국에 정착하는 후배들의 숫자는 고작 한 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는데, 어떤 동문들은 동창회야 일하기 좋아하거나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다보면 결국 시계탑은 물론이고, Convention을 통한 국내의 동문들과의 만남, 모교나 후배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남아있는 동기들끼리 동기회나 계속하고, 원하면 가끔 전체 서울대 동창회나 오가면 되겠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의대 미주동문 여러분!

매년 새로운 회장단이 바뀔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동창회의 활성화입니다. 물론 결코 빈말이나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수년 동안 동창회에 관여해 왔지만 막상 회장직을 맡고 보니, 보다 더 절실하게 동창회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외람스럽지만 동창회의 활성화에 앞서, 서울의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동창회원들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Vision이 없이는, 동창회의 미래를 기대하거나 보장 할 수 없는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섰음을 감히 선언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함춘동산 모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모름지기 모교의 명예와 긍지를 이어받은 동창회를 위하여 베풀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제 저는 미주서울의대 동창회라는 큰 배에 부름 받은 역부족한 선장입니다. 여러분이 피 땀 흘려 준공하고 거의 반세기에 걸쳐 운항해 오신 그 배에, 저보다 연륜과 지혜가 뛰어난 선배동문님들의 권고로 저에게는 과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배는 그 동안의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져가며 언젠가는 침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차피 세상의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놀라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멀쩡한데 왜들 그러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앞서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세간에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고장 난 브레이크처럼, 마냥 질주만 하는 이기심?.. 글쎄요?

그보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위기의식' 곧, 이제는 내가 먼저 그리고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결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피 땀 흘린 정성과 투자로 이룬 우리들의 항해를 여기서 멈출수는 없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죽어야하는 운명이라고 지금 당장 생을 포기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옛 사랑을 잊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동창회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적인 사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 자신과 가족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사랑하는 동문, 특히 동기들이야말로 더 없이 귀중한 나의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느 동문도 우리 동창회의 존속과 그 당위성을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주서울의대동창회가 어느 단과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유일한 동창회로써 수일간에 걸친 annual convention, 백만 불 이상의 함춘기금 모금, 수십 만불의 장학기금 조성등 놀라운 활동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배님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때,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님들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애쓰고 공 들였던 동창회의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면 서 그냥 방관하시고만 있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회장단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석 동문이 전체 1200명의 동문중 100여명이 채 못 되는 Convention을 바라보며 참석하신 동문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한편으로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동창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아직까지 기회를 놓치신 동문님들께 호소합니다.

"언제인가 때가되면 나도..."만을 외치다가, 15년 전 간신히 동창회에 발을 들인 저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처지임을 말씀드리면서, 경애하는 동문여러분,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동문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이 미국 땅에 곳곳이 자리 잡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제껏 한 사람 한사람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동창회라 하더라도, 어렵지만 동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離任辭

회장 정 인 용 (71)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회장직을 이임하게 된 정인용입니다.

취임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임을 한다니 세월이 몹시도 빠름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동창회의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동창회 회장으로 추천해주신, 선배님, 동문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일 년 동안 수고해주신, 편치 않은 조건에도 온 힘을 다해 Scientific Chair를 맡아 수고해주신 조세진 동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강창홍, 석창호, 오영호, 서인석 동문들과, 모든 구진 일들을 마다않고 도와주신 이영인 동문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일 년 동안 수고를 해주신, 특히 Silver Project를 맡아주신 한기현 선배님, 이만택 선배님을 비롯한 58년 선배님들, 멀리서 참석해주신 김갑균 선배님, 많이 도와주신 동문들과 또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창회는 그동안 역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님들, 무엇보다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날의 우리 동창회를 지키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서울에서 미주지역 Convention에 참석하시어 미주동창회의 무게를 더해주시는 강신호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박용현 회장님, 임정기 학장님, 정희원 병원장님, 이명철 부총장님, 김종화 부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저는 선배님들을 공경하고, 동문들과 화합하고, 또한 후배님들을 보살피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리켜보건데 너무도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모든 저의 부족함을 뉘우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동창회는 의욕이 넘치시고, 아이디어가 출중하신 새로운 회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대옥 회장께서, 벌써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시니, 동창회의 앞날이 몹시도 밝을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의 동창회를 위해, 신임 회장단께 힘을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리라 믿고, 이만 이임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배님들은 많지 않은 후배동문들만을 기대하며, 반대로 후배동문 여러분은 더 이상 선배님들에게만 의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 발 벗고 동창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한 마음으로 나서서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Convention을 통하여 동창회가 펼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감동 그리고 도전도 함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임원들을 더욱 더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사업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몸 되는 동창회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회원들의 확보(?)가 비록 몇 명에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학생시절은 모교가, 졸업해서 동창이 되면 동창회가 caring을 하는데, 우리 미주동창회는 Green Project를 통해서 이처럼 단기실습을 오는 수십 명의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돌보고 있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오나 미주동창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올해의 경우 약 사십 명에 달하는 이러한 학생들의 단기 연수가 그저 개인의 유익한 해외경험을 돌보는 그 자체로 끝나고 만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후배들의 숫자가 현재의 2명, 많으면 4-5 명보다는 훨씬 증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래의 Green Project의 근본 취지가, 이미 이곳에 정착한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권면하는 뜻있는 동문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겠습니다. 저보다 후배들이 중심이 되는 몇 사람의 회장단 구성마저도 힘들 정도로 이들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미약한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참여한 후배동문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동문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앞날의 동창회를 이끌 사명자의 긍지로 참여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코 남보다 덜 바빠서가 아닌데도 봉사와 헌신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이제껏 동창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왔던 몇 사람들에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기위한 현재의 활동도 필요하고, 더불어 Residency application을 돕고 새로운 Post-Training job을 마련하는데 동문들의 최대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필요하다면 Membership committee와 같은 <다음면에 계속>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 시: 2011년 7월 1일 (금) 오후 4시

장 소: Omni Interlocken Resort, Broomfield, Co

참석자: 이만택(58) 추재욱(63) 한기현(63) 권정덕(64)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변영석(69) 이성춘(70) 김유식(71) 김일영(71) 박진국(71) 오동환(71) 정인용(71) 조세진(71) 석창호(72) 오용호(72) 최인섭(72) 문대욱(73) 서인석(73) 백승원(79) 이영인(86)

한성수(60) 김한종(62) 박찬형(62) 서정선(76) 윤수지(12) 윤정기(12) 조승우(12)

Proxy: 김웅식(52) 노용면(55) 정구영(57) 김병석(59) 최종진(59) 손영진(62) 조명호(62) 김태웅(63) 김택수(63) 김태환(64) 조동준(64) 최준희(64) 허선행(64) 조의열(66) 이태석(67) 한영수(67) 김병오(69) 엄규동(69) 윤효운(69) 천양곡(69) 인정길(70) 조영갑(70) 강창홍(71) 조형기(92)

서인석(73) 장학위원장이 강창홍(71) 총무를 대행하여 사회를 맡음.

성원보고 (총 98명중 30명(8명 겸직) 참석, 26명(2명 겸직) proxy) 후 개회를 선언함. 지난 대의원회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제청으로 통과됨.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 서정선(76) 모교 생화학교수, 3명의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림.

회장보고 정인용(71) 회장: 뉴욕, LA 등 대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개최한 관계인지 참석한 동문이 적음. 다행히 한국에서 강신호 명예회장님, 박용현 동창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음. 시카고 근교에 flood가 심해 UPS delivery가 도착하지 않았음. 지난 대의원회 초록, abstract book 등 부족한대로 Convention을 꾸려갈 예정임.

총무보고 강창홍(71) 총무: 서인석 장학위원장과 이영인 GP위원장이 함께 도와가며 총무 임무를 대신 수행해 갈 예정임.

재무보고 오용호(72) 재무: 오용호 재무가 늦게 도착할 예정이어서 서인석 장학위원장이 대신 보고함. 지난 회장단의 재무보고중 몇몇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고 finance committee의 audit가 결정되었음을 최순채 현 재정위원장이 지적함.

Committee reports

Finance 최순채(66) 위원장 : 지난해 재무보고를 보완하고 audit를 받을 것을 재 강조함.

Scholarship 서인석(73) 위원장: 현재 4 종류의 Scholarship이 있음. 앞으로 더욱 많은 named scholarship이 설정되기를 바램. SNUCMAA 장학금 (\$10,000 from SNUCMAA scholarship fund & \$10,000 matching fund from SNUCM)으로 10명의 본과 4학년 Summer electives 경비를 보조하고 있음. 매년 3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미주내에서 elective를 택하고 있음.

Fund Raising 추재욱(63) 위원장: 특별보고사항 없음.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66) 위원장: Fund가 1월 1일 이후 큰 변동이 없음. 몇 년 전부터 warrantee option을 들어 매년 6%의 성장을 하고 있음. 매년 \$20,000의 장학금을 지불하고도 현재 \$410,800 잔고가 있음. Fund 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더 자세한 답변은 fund manager 백승석의 non-CME 강의후 듣기로 함.

Research & Fellowship 최영자(66) 위원장: \$1,000,000 CMD fund를 모교로 이전하며 설정되었던 미주동창회 Quarter제가 지난 5년여 유명무실해 졌음. 새 회장단의 노력으로 원래대로 환원되기를 강력히 요망함.

Green Project 이영인(86) 위원장: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현재 벌려놓은 사업들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겠음. 이미 미국에 와있는 후배들의 진로를 돕고, 그들의 동창회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음. 모교 학생 및 전공의들의 미국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음.

<전면에서 계속> ad-hoc committee도 구상하고 있으니, 뜻있는 동문들의 자원을 바랍니다.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동창회 사무실을 섬기다 family business를 위하여 은퇴하시게 된 김해경씨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드리며, 새로 부임하신 Mrs. Jamie Kim도 앞으로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E-mail을 재정비하여 모든 동문님들에게 수시로 동창회의 사업과 계획, 기타 정보를 알리는 Communication Channel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동창회 모임에 대한 계획을 올립니다.

그동안 좋은 의견을 나누시고 격려해주시는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건대, 다는 아니지만 동기회모임들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편 매년 다가오는 annual convention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수록 많은 동문들, 특히 은퇴하신 동문들께서 적지 않은 비용으로 convention 만을 위해서 오가시는 일이 쉽지 않다는 중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재미있는 동기회 모임의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비교적 2-3일로 축소된 convention을 병합하는 방안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7박 8일의 Cruise를 통하여 각자 독자적인 동기회만의 모임을 가지 시되, 배가 하루 종일 항해하는 이를 동안만 Convention Program을 갖는 계획도 있었으나 어떤 동문들에게는 너무 길다는 의견을 섭렵한 결과, 오는 1월 20

Publication 김병석(59) 위원장: 특별보고 사항 없음.

By Laws 노용면(55) 위원장: 특별보고 사항 없음.

Advisory & Exchange 관승용(71) 위원장: 특별보고 사항 없음.

Nominating 이성춘(70) 위원장: 차기회장에 남가주지부 김일영(71; cardiologist), 2011-2014 이사에 손영진(62), 김태웅(63), 조영갑(70), 강창홍(71), 김성환(71), 조세진(71), 오용호(72), 고용규(73), 나두섭(73), 김동훈(77) 등을 추천, Floor nomination 혹은 변경없이 승인됨.

Silver Project 한기현(63) 위원장: 40여명의 스위스 여행이 만족스럽게 끝났음. 일년 더 책임을 맡아, 내년 5월쯤 오스트리아에서 폴란드 북쪽으로 내려오는 여행을 구상중임.

Charity 최영자(66) 위원장: 4년전에 ad hoc committee로 시작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fund raising이 가장 문제임.

Convention Chair 강창홍(71) 위원장: 정인용 회장께서 엄규동 및 강창홍 동문들의 부재로 이영인 GP위원장 등의 협조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함. 특히 조세진 학술위원장이 노고를 치하함.

Scientific Chair 조세진(71) 위원장: 강사는 여러 번 했었는데, 연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연사들에게 연락을 하고, 몇몇 강사들의 경비 협조 등 조직을 꾸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충이 있었음.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강사들께 감사드립니다.

Golf Chair 조영갑(71) 위원장: 정인용 회장께서 조영갑 위원장이 허리를 다쳐 참석치 못하게 되어, 이영인 GP 위원장이 대신 책임을 맡고 있음을 보고함. 이영인 동문이 인원과약, 조 편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함.

Non-CME Chair 임혜기(Mrs. 임준형 '73) 위원장: 조세진 학술위원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예년보다 훨씬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Loc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최인섭(72) 회장: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가 힘들어짐. 경조사때 연락을 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음.

Central New York Chapter 권정덕(64) 회장: 지부 모임을 시작하지 20년이 됨. 일 년에 두어번 모여 골프 및 망년회를 갖고 있음. 오인환(73) 총무가 열심히 도와주어 다가오는 7월말에 1박2일 골프 아웃팅을 가질 예정임.

Maryland Chapter 나수섭(50) 회장: 조세진 학술위원장이 대신 발표함. 한 달에 한번 골프모임을 갖고, 일년에 두 번 정규 모임을 갖는데, 회원 중 한 명이 강의를 하고 있음.

Southern California Chapter 고용규(73) 회장: 이성춘(70) 전회장이 대신 발표함. 은퇴하고 이주해 온 동문수가 점점 늘어 현재 220명의 회원이 있음. 동창회에 대한 인식, 이사회 및 대위원회에서 토의되는 내용이 편이하게 다름. 대화 소통을 위해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해야함.

문대욱(73) 차기회장: 동기모임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전체 동창회 모임 참석률은 저조함. 지난 10년간의 학술대회 참석현황을 살펴보니, 참석한 동문들의 분포가 회장 및 총무의 출신지부, 학년 등에 너무 치우쳐 있음을 발견함. 내년도 모임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전체 모임과 동기모임을 절충하는 계획을 추진중임. 모국에서는 이런 모임이 없으므로 많은 고국의 동문들도 우리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New Business:

1) New directory: 마지막 directory가 2006년에 출판되었고, 그동안 주소, e-mail 및 전화번호 등이 많이 바뀌어 개정 directory가 절실함. 문대욱 신임회장이 내년 1월말 Convention을 끝낸 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함.

2) 박찬형(62)동문께서 미주 한인들의 위암에 대한 무지와 소홀한 대처에 대한 동창회의 협조를 요청함. 제반사항을 정식 서면 제출후 신임회장단과 함께 노력 하기로 함.

3) E-mail 활성화: 문대욱 신임회장이 모든 회원들의 e-mail을 update해, committee activity를 포함 모든 동창회 활동에 e-mail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함.

다음 대의원회는 내년 1월말 Convention에서 갖기로 하고 5시50분에 정회함.

일부러 22일까지 2박3일 동안 Disney World에서 두 번에 걸친 banquet, Scientific symposium/Non CME, Golf가 포함된 Convention을 가진 후, 원하는 동 문들에 한해서 22일(일요일) 4pm부터 29일 6am(일요일)에 걸쳐 West Caribbean Cruise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달리 원하는 동문들은 Golfing이나 Disney world tour 등으로 계속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시계 탑에 실린 여행안내 소식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대화 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 가운데 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하여 소화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심초사 준비하시고 이중삼중의 직무를 감당하며 수고하신 보람으로 알차고 즐거운 Convention을 치르신 정인용 회장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저를 위시한 회장단은 새로운 각오로 무조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하였습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워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가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반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삶든 종든 서울의대인의 흔적을 지니고 하나 된 우리 모두, 자랑스럽고 책임감 있는 서울의대인답게, 다 함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참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회장단, 학년대표, 지부대표 명단 및 연락처

Executive Officers	Name	Home	Office	Fax	Cellular Phone	Address	E-Mail
President	Moon, Dai Ok(73)	(302) 427-8880	(302) 731-0600	(302)427-8835	(302)983-7669	Wilmington, DE	dmoon625@hotmail.com
President Elet	Kim, Il Young(71)	(626) 355-0526	(323) 662-1175	(323)662-7817		Arcadia, CA	ilykim@gmail.com
1st Vice President	Cho, Kyung Ku(78)	(818) 783-5392	(213) 487-3060			Losangeles, CA	
2nd Vice president	Baik, S. Andrew(79)	(908) 626-0935	(732) 744-9090	(908) 626-0937		Warren, NJ	andrewbaik5@gmail.com
Secretary	Kwon, Oki(78)	(301) 996-3569	(301) 683-9781	(301) 681-9780		Silver Spring, MD	okk7826@yahoo.com
Treasurer	Shim, In Bo(83)	(201)568-5056	(718) 836-0009	(718) 836-1811	(917) 561-8972	Englewood Cliffs, NJ	mibsmjjean@earthlink.net
Committee Chairmen							
Finance	Choi, Soon Chae(66)	(908) 561-9240	(908) 561-9157	(908) 769-5308		Warren, NJ	soonchoi@aol.com
Scholarship	Seo, In Suk(73)	(201) 871-9191	(718) 250-8894	(718) 250-6760	(551) 587-3212	Englewood Cliffs, NJ	ins9002@gmail.com
Fund Raising	Chu, Jai Ock(63)	(201) 569-3520	(201) 569-6541			Englewood Cliffs, NJ	jaiochu@yahoo.com
Scholarship Fund	Lee, Michael M(66)	(914) 961-2821	(914) 787-1000		(914) 844-7439	Tuckahoe, NY	docM4@aol.com
Research & Fellowship	Cho, Sechin(71)	(410) 750-9188				Woodstock, MD	cho3gene@gmail.com
Green Project	Lee, Youngin(86)	(201) 969-8470	(212) 305-3293		(201) 248-1630	Fort Lee, NJ	fl127@columbia.edu
Publication	Kim, Byungsuk (59)	(718) 460-5190	(718) 616-5335	(718) 616-5314		Brooklyn, NY	dbkimmd@gmail.com
By Laws	Rho, Yong-Myun(55)	(914) 738-4511		(914) 738-4511		Pelham Manor, NY	yrmhmd@optonline.net
Advisory & Exchange	Lee, Man-Tack(58)	(215) 968-3897			(215) 913-7519	Newtown, PA	mmtlec@hotmail.com
Nominating	Chung, Inyoung(71)	(908) 647-8350	(908) 755-7440	(908) 755-6999		Warren, NJ	inyoungchung44@gmail.com
Silver Project	Han, Ki Hyun(63)	(973) 256-4041				Woodland Park, NJ	kihan@comcast.net
Office Management	Kwak, Syng Yong(71)	(718) 966-0579	(718) 273-8052		(917) 756-2437	Staten Island, NY	syngkwak@yahoo.com
2012 Convention Co-Chair	Kwon, C Stephan(64)	(718) 815-2393	(718) 818-3099	(718) 818-3201	(315) 796-5455	Staten Island, NY	skwon@rumcsi.org
2012 Convention Co-Chair	Seo, In Suk(73)	(201) 871-9191	(718) 250-8894	(718) 250-8879		Englewood Cliffs, NJ	ins9002@gmail.com
Convention Local Chair	Kim, Jae Suk(72)	(407) 876-6022	(407) 291-2440	(407) 290-8966	(321) 331-7854	Windermere, FL	
Scientific Chair	Kang, Yoogoo(71)	(856) 235-2128	(215) 955-2765	(215) 503-3456	(609) 923-4115	Moorestown, NJ	yoogookang@jefferson.edu
Non-CME	Mrs. Suk, Chang Ho(72)	(516) 466-0399	(718) 461-6212	(718) 539-1238		Great Neck, NY	changhsuk@aol.com

Class Representative 2011-2012

Class	Name	Phone Number	office phone	Cell phone	Fax	Address	E-Mail Address
1955	Kim, Ung Sik	(614) 889-8873				Powell, OH	ungskim@yahoo.com
1957	Chung, Edward K.	(407) 876-9494		(407) 405-1796	(407) 876-6694	Windermere, FL	sjklee21@daum.net
1958	Lee, Manuel Man-Tack	(215) 968-3897		(215) 937-7519		Newtown, PA	mmtlec@hotmail.com
1959	Choi, Jong Jin	(631) 979-6579	(631) 862-3540			Smithtown, NY	choi007@optonline.net
1960	Chon, Hikon	(215) 635-6030		(267) 231-8980		Elkins, PA	hikonchon@hotmail.com
1961	Lee, Han Soo	(516) 676-5552	(631) 789-7809		(631) 789-8571	Amityville, NY	askhanso@optonline.net
1962	Ryu, Chun kee	(714) 544-0559	(714) 543-4447	(714) 357-0559	(714) 543-4488	Santa Ana, CA	ckryumd@yahoo.com
1963	Han, Ki Hyun	(973) 256-4041	(973) 818-0575	(973) 818-0515		Livingston, NJ	kihan00@yahoo.com
1964	Lee, Woong Man	(518) 798-8633	(518) 926-3841	(518) 321-3396	(518) 926-3857	Queensbury, NY	wmlee38@hotmail.com
1965	Choung, Kilwha		(614) 234-6884	(614) 868-5697	(614) 234-7077	Black Lick, OH	kchoung@insight.rr.com
1966	Lee, Michael Myunghee	(914) 961-2821	(914) 787-1000	(914) 844-7439		Scarsdale, NY	docm4@aol.com
1967	Choi, Stan Seung Woong	(908) 755-2760	(908) 769-1020	(908) 812-0232	(908) 668-1486	Edison, NJ	drstanchoi@aol.com
1968	Seo, Youn Seok	(419) 999-5379		(419) 234-4154		Lima, OH	younseokseo2004@yahoo.com
1969	Uhm, Kyudong	(973) 777-5299	(973) 471-0981	(614) 226-1156	(973) 471-5818	Clifton, NJ	kduhm@yahoo.com
1970	Yin, Chung Kil	(740) 548-2088		(614) 234-8050	(740) 548-0377	Delaware, OH	yin500@hotmail.com
1971	Kim, Sung Hwan	(323) 965-1712		(323) 913-4920	(323) 913-4973	Los Angeles, CA	sungwkim@yahoo.com
1972	Suk, Chang Ho	(516) 466-0399		(718) 461-6212	(718) 539-1238	Great Neck, NY	changhsuk@aol.com
1973	Lee, Ke Suk	(440) 449-7239	(216) 362-2274	(216) 312-3010		Pepper Pike, OH	keslee@gmail.com
1975	Kim, Wun Jung		(412) 802-6858	(734) 717-1953		Lombertville, MI	kimwj@upmc.edu
1979	Kim, Chee Gap	(201) 750-0897	(201) 541-1111		(201) 407-9644	Closter, NJ	cheegap@gmail.com
1986	Lee, Francis Y.	(201)569-1895	(212) 305-3293	(201) 248-1630		Fort Lee, NJ	Fl127@columbia.edu , nybonetumor@gmail.com

2010-2011 Local Chapter

Local Chapter	Name	Class	Home Tel	Office Tel	FAX	E-Mail Address
New England (Boston)	Choi, In-Sup	72	(781) 899-3683	(781) 744-3330	(781) 744-5630	in.sup.choi@lahey.org
Greater NY	Baik, Andrew S.	79	(908) 626-0935	(732) 744-9090	(908) 626-0937	andrewbaik@yahoo.com
Central NY (Syracuse)	Kwon, C. Stephan	64	(718) 815-2393	(718) 818-3099	(718) 818-3201	skwon@rumcsi.org
Western NY (Buffalo)	Shin, Kyu Ho	68	(716) 636-0159	(716) 871-0181		khshin@aol.com
Nothern NY (Albany)	Han Sung Taik	57	(845) 331-7712	(845) 331-2613	(845) 331-2613	shan24-2700@yahoo.com
Greater Philadelphia	Lee, Sang Ha	51	(610) 269-1425			shlee27@gmail.com
Maryland	Lah, John Soosup"	50	(410) 486-8622		(443) 870-3275	jslah@comcast.net
Nothern OH (Cleveland)	Lee, Ke Suk	73	(440) 449-7239	(216) 362-2274	(440) 449-7239	keslee@gmail.com
Central OH (Columbus)	Choy, Young C.	71	(614) 406-4156	(419) 294-4991	(419) 294-6265	ycchoy@hotmail.com
Western OH (Cind.Dayton.Li)	Lee, Kun Il	68	(513) 891-1699	(513) 686-3000	(513) 891-5140	kleetraveler@aol.com
Minesota	Kim, Tae Hwan	64	(952) 835-7353			Tackim19@gmail.com
Texas	Kim, Poong Young	72	(713) 461-3664	(713) 973-2550		poongykim@aol.com
Southern CA	Koh, Yong Kyoo	73	(714) 374-8464			yongkyookoh@hotmail.com
Michigan	Nam, Sunghee	62	(248) 851-5393			sunsnam@comcast.net, sunsnam@msn.com
St. Louis Vicinity	Kang, Chang Suk	80	(636) 532-8396			Kangs5@msn.com
Greater Chicago	Ahn, Charles Changhyun	61	(630) 263-1623			charles.h.ahn@hotmail.com

ANNOUNCEMENT

제15회 (2011년도) 함춘 학술상 및 제8회 장기려 의도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을 공고합니다.

제15회 (2011년도) 함춘 학술상:

- 시상규정 주요골자:
 - 수상인원 및 연구비:
 - ① 함춘동아리학상 1명 - 연구업적부문 3,000만원.
 - ② 함춘의학상 2명 이내 - 연구계획 및 업적부문 총 3,000만원 이내.
 - 선정: 서울의대동창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서류:
 - ① 추천서 1부 ② 함춘학술상 후보자의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신청서 1부.

제8회 장기려 의도상:

- 시상규정 주요골자:
 - 수상인원: 개인 1명 또는 단체(1)
 - 연구비: 금메달 및 소정의 연구비. (단, 단체의 경우 금메달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
- 제출서류 (시상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
 - ① 추천서 ② 이력서 ③ 사진 3매
 - ④ 업적관련자료 ⑤ 업적요약서

추천: 각 지부회장, 동기회장

지원자격: 1. Due paying member of the SNUCMAA of NA.

2. Willingness to be presented in person at Award Ceremony in Seoul.

3. If Applicant is previous awardee, his/her post-award research accomplishment will be judged competitively.

접수마감: 2011년 9월 2일 (금)

시상: 2011년 12월 20일 (화) 함춘 송년의 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More details could be obtained from the committee upon the request.

Please send your application with supported documents to Sechin Cho, M.D., Chair,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2140 Turnberry Way, Woodstock, MD. 21163 or cho3gene@gmail.com

동창회 사무실 이전

지난 11년간 한 가족같이 동창회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봉사해 오신 김혜경 사무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아쉽게도 작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 동창회원 일동

갑작스런 동창회 사무장의 은퇴로 잠시 동안 혼선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새로 동창회 사무장을 맡게 되신 Mrs. Jamie Kim께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동창회의 주소 및 전화,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이메일 주소와 웹사이트 주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P. 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뉴욕지구 GOLDEN CLUB 소식



서울대학교뉴욕지역 동창회에는 나이 많은 회원들을 위하여 골든 클럽(Golden Club)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달 골프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모임에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lue Hill Golf Course에서 열렸다. 이 중 의과대학

출신은 10명 참가했다. 사진은 이날 골프에 참가한 동문들로 왼쪽부터 최준희(64), 이능석(63), 방석운(59), 허선행(64), 노용면(55), 한태진(64), 이정국(60), 이흥빈(63) 그리고 김성준(61)과 이상복(62)은 사진에 안 계십니다.

수련 위해 도미한 학생들과 간담회

금번 여름방학을 기해 30여명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이 Summer elective수련을 위해 도미했다. 뉴욕 근교의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학생 15명중 10명이 문대목 회장 및 executive member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눴다.



수련을 위해 뉴욕에 온 학생들중 7명이 이영인(86) 그린프로젝트 위원장 집을 방문, G.P.에 관한 power point presentation후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진은 뒷뜰에 있는 수영장 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있는 이영인 위원장.

미주동창회 이사 명단

미주동창회 2011-2014 이사들이 선임됐다. 아래 명단은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명단과 현재 이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동문들의 명단들 이다

- 2009-2012
채규철(59) 김택수(63) 추재목(63) 조동준(64)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한영수(67) 오동환(71) 장연웅(78)
- 2010-2013
이만택(58) 김병오(69) 엄규동(69) 과승용(71) 김유식(71) 박진국(71) 서인석(73) 박일우(77) 백승원(79) 조형기(92)
- 2011-2014
손영진(62) 김태웅(63) 조영갑(70) 조세진(71) 강창홍(71) 김성환(71) 오용호(72) 고용규(73) 나무섭(73) 김동훈(77)

한혜원(61)동문 오페라 관련 서적 발간



한혜원(61) 동문이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를 지난 겨울 발간했다.

550여 쪽에 달하는 이 책은 그동안 즐기면서 느꼈던 오페라의 이야기와, 한동문의 남편 한수웅(61) 동문의 오페라의 역사, 그리고 김진호(61) 동문의 그림 등으로 엮어진 61년 동기들의 합작품이다. 한 동문의 오페라 이야기는 이희경('61 당시 편집장) 동문의 권고에 의해 한 동안 시계탑에 게재된 바 있다.

김상인(55) 전 학장 별세

나의 의과대학 동기인 김상인(金相仁) 전 학장이 지난 3월 24일에 83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별세하였다.

그와 나는 1955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병리학교실 레지던트로 일을 시작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들을 했다. 일반병리학을 끝 마친 후 그는 대학병원에서 임상병리를 시작했고 나는 미국에서 법의병리를 시작했다. 그는 그후 의과대학 학장직을 4년 동안 맡아 일 하면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계속 교육계와 의학계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내가 한국에 나갈 때면 늘 젊은 시절 친구처럼 맞아주던 일들이 기억난다. 그 중에는 우리 둘 만 아는 일들이 꽤 있지만, 친한 동기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의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 노용면 (55)

Obituary, Kyu Myung Lee, MD (46) Dedicated Teacher and Cancer Researcher

Dr. Kyu Myung Lee, a dedicated professor and a cancer researcher who worked for 25 years at Cornell University,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died of cancer on June 13 at his home in Ashburn, Virginia.

Dr. Lee received his PhD in Microbiology at Cornell University in 1952, taught and did virus cancer research at Cornell University from 1963 to 1988. In 1956, he returned to Seoul and worked as an advisor for the United State Office of Management's Office of Economic Coordination and also taught in the Department of Micro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for a few years until he returned to the Cornell. He was the first to introduce " modern tissue culture technology for virus research" in Korea. Survivors include his wife Rhea of 66 years, two sons, Phillip of Ashburn, Virginia, and James of Moorestown, New Jersey and four grandchildren. Services were held on June 17, 2011 at the Robert A. Pumphrey Funeral Home in Rockville, MD.

During the 1970, I met Dr. Lee for the first time since I was also engaged in virus cancer research at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Bethesda, Md. My wife Mary and I are grateful for the warm friendship we enjoyed with Dr. and Mrs. Lee over many years. I, particularly, cherish the wonderful time I had with him and his wife together at Padua, Italy at the Comparative Leukemia Society Meeting decades ago. And now he rests in peace.

By Johng Sik Rhim (57)

2011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서는 2011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대 상:**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성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 모집인원:** 8명 이하 (장학금 각 \$2,000 내지 \$5,000)
- 구비서류:** 신청서 (Website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음)
성적증명서, 자필소개서, 추천서 2통
- 응모기간:** 2011년 9월 15일 까지
- 발표 및 수여:** 2011년 10월 15일 개별통보
- 접수 및 문의:** SNUCMAA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11050 / Tel: (516) 365-5500 / Fax: (516) 365-5501
www.snucmaa.us snucmaa@yahoo.com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서 인 석

Green Project Corner

미네소타 대학병원 클럭십을 다녀와서

김민형(서울대학교 본과 4학년)

저는 지난 여름, 4학년 Elective 기간에 미네소타 대학 병원에 임상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University of Minnesota Medical Center Internal Medicine의 Hemato-oncology consult team에 소속되었으며, 타과에서 Hemato-oncology department로 consult를 의뢰하면 환자들을 1-2명 정도씩을 담당하였습니다. 저의 역할은 의뢰된 pround를 든 후에 patient note를 작성하고, attending이 rounding을 돌 때에 제가 진찰한 소견 및 plan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재작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실습 커리큘럼도 이와 유사하게 바뀌어서, 학생들이 2주 동안 한 병동에 배치되어, 매일 환자 두어 명씩 맡아서 주치의처럼 담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바뀌었을 때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지 몰라서 많이 당황해 하였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떻게 배워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 하였습니다.

본래 커리큘럼을 바꾸신 교수님들의 의도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교수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학생 실습은 원래 미국에서 먼저 시도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에서 어떻게 임상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외과대학 학생으로서 병원 경험을 한 것이 고작 2년뿐이고, 더욱이 미네소타에서의 클럭십은 한 달 남짓한 기간이기에, 학생으로서의 짧은 소견으로 임상 교육 시스템을 비교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다른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교육 시스템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했던 내과 학생 실습은 학생들에게 담당 환자를 배정해 주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primary care를 담당하는 것은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 먼저 레지던트 선생님이 초진을 보았으며, 학생에게 환자 배정이 되는 것은 환자에 대한 initial assessment와 management가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입원 절차가 끝난 담당 환자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했던 history taking과 physical exam을 다시 연습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레지던트의 초진 노트와는 별개의 학생 노트를 작성을 하였지만, 이는 실제 이루어지는 진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생 실습이 달랐던 점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주치의와 같은 primary care 역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에게 배정된 환자는 레지던트에게 중복으로 배정되지 않았고, 학생이 주치의로서의 책임을 지어야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레지던트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pager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교환학생으로 방문한 저에게도 첫날 pager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이 담당할 환자와 관련된 일은 학생의 pager로 직접 연락이 갔습니다. 학생들은 담당 환자의 pround를 든 후에 본인이 진료한 소견을 담당 팀의 헬로우와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Pathology team이나 radiology team도 환자의 검사 결과에 관한 의논을

할 때에는 담당 학생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텐딩이 라운딩을 돌 때에도 학생들은 본인이 담당한 환자의 진찰 소견, Assessment 및 plan을 설명해야 했고, 어텐딩은 플랜에 대해서 담당 학생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어텐딩은 학생이 작성한 환자 노트에 addendum을 덧붙이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적고, 학생의 assessment 및 plan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I evaluated this patient with the student. I agree with the plan on this patient note."와 같이 동의 한다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환자기록에는 색션별로 저자가 구별되어 명확하게 표기가 되었으며, 학생이 작성한 문장은 모두 학생의 이름으로 전자서명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텐딩의 코싸인이 들어간 환자기록은 실제 진료에 반영되는 의무 기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상 실습을 돌게 되면 학생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더라도 헬로우나 어텐딩에게 필요한 feedback을 바로 받을 수 있었고, 미국의 토론 문화는 어텐딩과의 토론을 더욱 깊이있게 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직접 진료하면서 공부하는 보람은 다른 의과대학 공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임상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의무기록에 잘못된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은,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학생들의 assessment와 plan을 일일이 토론했 주면서 회진을 돌게 되면 회진이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수님들에게 추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우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Internal Medicine department에서는 학생들의 임상 교육 시스템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들을 위한 모닝 컨퍼런스 역시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혹은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전형적인 케이스를 발표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인상이 깊고 흥미로웠던 점은 케이스의 발표 방식입니다.

케이스 발표자는 처음에 환자의 나이와 성별, 주소만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발표자 외의 참석자들이 번갈아가며 history taking 질문을 던지고, 발표자는 알고 있는 것들을 대답을 해 주고, 미처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히스토리 토킹이 어느 정도 되면, 역시 참석자들이 번갈아가며 필요한 assessment 및 plan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CBC differential이 필요하겠다고 말하면, 발표자가 CBC differential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요새 한국의사 국가고시에 실습시험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이 환자 history taking하고 physical exam하는것, assessment 및 plan을 작성하는 법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하게 되었지만, 막상 실제로 병원 실습을 돌면서는 이

러한 연습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역할 때문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 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입원 경력이 오래된 케이스이고, 이미 무수히 많은 검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primary doctor로서의 역할을 연습을 해 볼 기회가 줄어듭니다.

저는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elective로 돌게 된 혈액종양학에 관심은 많았지만, 사실 항상 상태가 심한 환자들을 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공부할 것도 많은 혈액종양학 분야처럼 어려운 전공을 할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클럭십을 돌면서 접할 수 있는 Oncology 환자들 역시 leukemia/ lymphoma 환자나 말기 종양 환자가 많았는데, 특히 제가 속한 팀에 의뢰되는 환자들은 매우 심한 환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클럭십을 돌 때의 담당 교수님은, 미네소타 내과 레지던트들 사이에서도 무섭기로 유명한, 매년 레지던트들을 한 번씩 울게 만든다는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실습에 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돌면서 교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기에 매우 큰 보람을 얻었고, 더불어 혈액종양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한 케이스는 매우 복잡한 가진 pancytopenia 환자였는데, 환자의 platelet count를 시간 그래프로 plot한 후에 그녀가 투약중인 20여 가지 약의 dose 변경 상황을 매칭을 시켜서 어텐딩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러면서 본인이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느끼는 한계를 말씀해주셨는데, 미국에서의 수가 제도는 환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encounter를 하는 시간만이 count가 되기 때문에, 환자를 만나기 전에 차트를 리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꺼운 차트를 리뷰하고 환자를 보러 가기 보다는, 환자를 일단 먼저 만나서 히스토리 토킹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입원 경력이 긴 복잡한 케이스에 있어서는 환자를 대면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두꺼운 차트를 리뷰 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 생각에도 미국 진료 시스템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를 방문하는 중에, 로체스터에 있는 Mayo clinic Hepatology에 계신 김용 교수님을 찾아뵙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뵙고 외래도 참관할 수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긴 시간을 할애하여 환자와 함께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논하는 점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다섯 명의 식구들을 동반한 말기 담관암 환자가 있었는데,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보여주며, 앞으로 환자에게 painful한 procedure를 피할 수 있는지, 앞으로 실제로 치료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보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매우 인상이 깊었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ideal한 patient-doctor relationship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클럭십을 계기로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미국에서도 training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보다 깊은 의사-환자 encounter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식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학생에게 주어지는 주치의의 책임감 역시 저에게는 매우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하시는 일도 경험해보고, 선생님들의 가족들과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졸업 후에 계속 고민해야 할 인생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클럭십은 학교의 affiliation을 통해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좋은 경험의 기회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기왕이면 실습 초반에 적극적인 미국 학생 실습 시스템을 경험을 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교에서의 실습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미국에서의 좋은 클럭십 기회를 갖도록 지원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미주동창회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탐을 보다 품격있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문여러분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오니 아래 내용에 참조하시어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 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원고는 가급적 1면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요.
- 종교적인 내용과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은 사양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해주시요.
- 원고는 한글이나 Word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혹은 CD 는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dbkimmd@gmail.com

아직 2년 남은 졸업 50주년 모임을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다는 동기생들의 뜻을 받들어 조한원 군이 출선해서 이번 2주간의 남미 항해 여행을 준비하였다.

처음 예정했던 18쌍이 결국 11쌍으로 낙착되어 지난 1월 25일 출발하였다. 델러스에서 10시간쯤 비행기로 산티아고에 도착하니 또 3시간을 더 앓았다. 비행장 근처는 별로 나무가 없고 남가주와 비슷한 주변 경치였다.

발파라이소 승선장에서 출서서 기다리는 동안 동기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한원, 김태웅, 장세곤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는 달라스, 이종두, 고영희 부부들은 워싱턴, 김태형 부부는 아트라타, 장인호 부부는 필라델피아, 송용덕 부부는 마이아미로 부터 그리고 신상철 복음 병원장과 이종욱 학장은 한국에서 부터 모두 11쌍이 반갑게 악수하고 열싸 안으니 모두가 기쁜 모습으로 건강해 보였고 70살 넘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우리는 소학교 때 왼쪽 잤던 동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발파라이소와 비노델마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사철 기후가 온화하고 습기가 적고 마치 남가주 같아서 비슷한 식물과 꽃이 많았다. Chile 사람들은 80%가 원주민과의 혼혈인 (메스티조)이고 다른 백인들은(독일, 스위스 등) 자기들끼리 고장을 형성하여 산다고 하며 시내에는 가끔 독일어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남미 나라중 개인소득이 제일 많고(\$1,7000) 한국과 제일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자동차가 많이 눈에 띄었다. Valparaiso 와 Vino del Mar는 기후가 일 년 내내 좋아 휴양지로 쓰이고 여행객들이 많다고 하며 칠레 해군기지로도 쓰여 해군 함정들이 항만에 정박하고 있었다. 주택지들은 모두 높은 언덕에 있어서 대부분 집들이 바다 전 경이 있어 보였고 주민들은 Funicular 전차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한다.

승선하여 여장을 꾸니 모두가 7층 해안쪽 발코니 방을 차지하여 전망이 좋았고 첫날 저녁 식당에서 모두들 모여 '위해서'를 봉창하면서 건배를 들었다.

처음에 탈락한 동기들의 이유는 14일간 항해가 너무 지루하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함상생활은 친우애를 돈독히 할 좋은 기회였으며 이는 40여 년 전 본인이 해군에 근무할 때 이미 경험한 일이었다.

댄스 교습, 스페인어 레슨, 라인 댄스, 영화, 버라이어티 쇼우, 최면술 등과 우리들만의 시간에서 가졌던 신상철, 김태웅, 송용덕, 장인호 군들의 멋진 남성 합창단의 합창 시리즈, 신상철 군의 피아노 독주, 그리고 각자의 체험담과 앞으로의 계획, 이종욱 학장의 50주년 행사 계획, 또 고영희, 장세곤, 김태웅 군들은 옛날 해군 시절 함상근무 일화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첫 3일 항해중 Patagonia 지방의 험준한 돌산과 그 위에 덮인 만년설, 계곡의 빙하와 협해에 동등 떠 있는 빙산을 구경하고 섬과 섬사이를 빠져 협해를 지나서 사흘째 아침 Punta Arena에 도착하였다.

남미는 1월이 여름이지만 이곳은 남극이 가까운 남미의 최남단이어서 바람이 심하고 날씨가 쌀쌀하여 코트가 필요했다. 산세가 험하고 나무들은 뜸뜸이 있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빈 땅이 넓어 개척할 여지가 많이 보였다. 이 해안 도시는 파나마 운하 개통 전에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항해하려면 이곳 마젤란 해협을 모든 배가 꼭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창했었고 이곳 박물관에는 그때의 기념물이 많이 소장 되어있다. 시내의 알록달록한 양철 지붕을 한 집들은

푸른바다를 배경으로 더 아름다워 보였다. 이날 점심때 현지 식당에서 먹은 조개탕이 좋지 않아서인지 몇 명이 배탈이 났다.

이곳 펭귄 서생지에 가보니 남극 펭귄보다 작고 땅굴에 살며 흰 뒷가슴에 V자를 거꾸로한 검정무늬가 있고 '마젤란 펭귄'이라고 부른다. 이 들은 철따라 이동하며 새끼를 하나만 낳고 부부가 번갈아서 새끼를 먹이고 훈련

63년 동기 졸업 48주년 기념

남미 여행기

신 영 규(63, 남가주)



시키며 부부애가 좋다고 한다. 이곳에서 구형 자동차 박물관, 원주민 박물관, 미손 박물관을 구경했다. 원주민들은 이주민들이 가져온 병들과 분별 없는 살인 때문에 멸종 되었다고 한다. 이주민 중에는 서반아 계통과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민 와 있고 한국인들도 있다고 하나 시간 때문에 만나 보지는 못했다. Punta Arena는 남미 최남단에서는 제일 큰 도시로 Argentine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자기를 알젠티아 지형적으로 가까워서 칠레 땅인데도 오히려 알젠티아 악센트로 말한다라고 한다.

밤새 마젤란 해협을 항해하여 다음날 아침 Ushuaia항에 정박하였다. 이곳은 알젠티아의 제일 남단 항구로서 과거에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아, 중죄수 감옥만 있었는데 지금은 세금 혜택을 주어 사람들이와 살고 감옥건물은 박물관으로 쓴다. 아직도 해군 사관생도는 필수로 어느 기간을 이곳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한다. 이곳 국경을 정할 때 바다물이 닿는 것으로 정했다 한다. 대서양 물이 닿으면 알젠티아 땅, 태평양 물이 닿으면 칠레 땅으로 정했다 한다. Tierra del Fuego는 '불의 땅'이란 뜻으로 마젤란이 항해할 때 원주민들이 신호로 올린 봉화를 보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곳 나무들은 모두 남쪽으로 향해 굽어 있는데 온난한 대륙풍이 추운 남극으로 향해 굉장한 속도로 부는 때문이라며 바람 속도가 시속 150킬로까지 달한다고 한다. 다시 승선할 때 심한 돌풍에 김태형 군의 모자가 날려가 기념품으로 바다에 남겼다. 이곳부터 남극이 약 600킬로 이어서 이곳이 남극 탐험대의 전방 기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해협은 작은 섬들이 많고 파도가 심해 항해하기가 힘들어 우리 큰 배 선장은 지름길 대신 우회하기로 결심하고 빙산들을 피하면서 Cape of Horn을 돌아갔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기 때문에 파도가 심해서 사모넬 몇 분들은 배멀미약을 복용해야 했으나 곧 파도에 익숙해져서 천만다행이었다. 이곳 Cape of Horn의 섬들은 기후 때문인지 나무가 전혀 없고 그중 큰 섬 하나에는 기상대 건물 하나만 우뚝 서 있었다. 출고 바람이 세계 불어 선상에서 구

경할 때는 두툼한 코트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 항해중 제일 빠른 속도로 2일 항해하여 Falkland Islands에 정박하였다(20 낮트). 이 섬 은 작아서 self tour가 가능했으나, 김 펭귄 구경만은 Van을 타고 갔다. 아직도 Falkland Islands 전쟁 때 파묻어 놓은 지뢰때문에 관광객들이 해안에 접근 못하도록 곳곳에 경고문을 걸어 놓았고 지금은 두 나라가 협력하여 지뢰 제

거 작업을 하고는 있다.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전쟁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다. 알젠티아 군부가 국민의 군정 반대 여론을 전환기 위해 눈앞의 가시인 이 섬을 영국 점령에서 탈환한다는 구실이 있었다. 알젠티아 해병대 제일과가 Stanley 시 까지 상륙했었으나 보충 병력을 실은 순양함 Belgrano를 영국 전투기가 폭격, 격침하여 많은 해병 사상자가 생겨 알젠티아는 결국 병력을 철수시켜야만 했고 또 영국은 자국의 군함 5척을 침몰 당함으로써 양측에 통합 2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겨 결국 알젠티아의 철수로 전쟁은 끝나고 알젠티아 군사정권의 막이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알젠티아가 쓴 불란서제 'Exocet' cruise missile 들 중 하나가 불발했었는데 그 뇌관을 빼어낸 나머지 missile 은 박물관에 진열해 두고 있었다.

이 전쟁 충훈담에는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었다. 이 전쟁의 결정적 역할은 레건 대통령때 미국 인공유성과 night goggles의 도움이었다는 전쟁 야화가 있다.

이 섬은 처음 영국이 점령했으나 고도에다 일기가 불순하고 너무 추워서 농산물 자급자족이 힘들어 일단 철수했다니 독일인들이 상륙 주거한 것을 후에 알고 영국이 다시 점령하게 되었고 알젠티아는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 이곳에서 제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이제는 불자 보급을 끊어 버렸다고 한다. 그 후 브라질에서 물자 보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새 브라질 여성대통령이 알젠티아 편을 들어 보급줄을 끊어 버려서 현재 Falkland Islands는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근래 여기서 큰 해저 유전을 발견하여 영국은 이 섬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이곳 우체국에서 엽서 몇장을 부쳤는데 직원 하는 말이 항공 우편도 미국까지 2주일 걸린다고 하면서 옛날과는 달리 알젠티아나 브라질을 거쳐 미국으로 가지 않고 우선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다시 가기 때문이란다. 이곳에는 또 하나 전쟁승리탑이 있는데 이는 독일 순양함 'Graf von Spee' 격침기념비이다. 이에 대해서는 Uruguay 상륙기에서 언급하려고 한다. 이런 망망고도에서 고생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컷대가 높은

영국 사람의 인상을 뒤로하고 알젠티아 행 이틀간 항해를 시작했다.

과도가 심했지만 배가 워낙 크고 그동안 모두들 항해에 익숙해져서 배멀미없이 모두들 잘 항해했다. 알젠티아 Buenos Aires항에는 아침에 일찍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정박할 부두가 없어서 하선이 한 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La Plata 강은 글자 그대로 하구가 넓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는 파리를 모방해서 건축했는데 도로가 아주 넓고 남미서 제일 크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Opera house(Teatro Colon), Casa Rosada(분홍색 대통령집무청사), Congress Nacional, Catedral Metropolitana (San Martin 장군의 묘가 있음), 군정시대 고문 끝에 죽음으로 억울하게 사라져 버린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침묵 농성했던 여인들의 광장(Plaza de Mayo), Floralis Genérica (움직이는 기계꽃), Tango의 근원지 La Boca, Galleria Nacional, 호화롭게 꾸며놓은 도시같은 묘지(Recoleta) 등을 안내원을 따라 구경하였다. Eva Peron의 "I'll be millions" 라는 연설이 새겨진 검은 묘석은 구경꾼이 하도 많아 멀찌감치에서만 보았다. 이 묘지는 하나의 작은 시가를 형성해 그렇다 하는 집 사람들만 매장될 수 있다고 한다. 백인 인구(주로 이태리와 서반아)가 97%임으로 인종 차별이 있고, 개인소득이 \$12,000이나 경제가 침체되어도 먹을 것(소고기, 과일 등)이 많아서 별로 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 더구나 의료혜택과 교육이 대학까지 무료를 한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는 3시간 낮잠 자고, 3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저녁은 9시에 먹고 하루 종일 거의 소고기만 먹는다고 한다. 하긴 팜파스와 차오에서 수많은 살찐 소들이 싼값으로 도살장행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곳 한인 식당에서 오랜만에 열린 해물탕에다 불고기와 김치를 먹고 이 고장 맥주로 흥을 돋구었다. 이곳 맥주 맛이 좋았다. 치마저고리를 입힌 성모상이 있는 한인 교회를 버스 참너머로 바라보면서 한국 교민들의 행운을 빌었다. 한국교민은 3만명 정도로 대개 의류봉제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그날 밤 늦게 리플라타 강을 건너 Monte Video에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였다. 우루과이는 인구 3백만명의 작은 나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끼어서 생존하기가 힘든 나라 같은 인상이다. 개인소득 \$11,000 역시 교육과 의료가 무료를 한다. 몬테비데오 도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보다 소규모이고 초라해 보였다.

이 나라 해군본부 앞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양이 많고 맛도 좋았다. 이곳 맥주도 역시 맛이 순하고 뒷맛이 좋았다. 안내 여인은 몬테비데오 시내 구경은 범죄가 많다는 핑계로 안가고, 싸구려 기념품점에 우리를 데리고 다녔다. 이차 대전 중 격침당한 독일 정예함 3척중 하나였던 Graf von Spee 순양함은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던 중 Falkland Islands 섬을 모항으로 썼던 3척의 영국 구축함으로부터 포위공격을 받고 침몰 직전상태에 달하자 선장이 간신히 손상당한 배를 몬테비데오 항까지 물고 왔으나 당시 중립국 이었던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보호신청을 거절당하여 궁여지책으로 모든 선원만 하선, 망명시키고 자기는 배를 La Plata 강 상류로 이동하여 폭파, 침몰시키고 자신은 부노에스 아리레스 호텔방에서 권총 자살을 하였다. 자살현장에는 독일국기만 펼쳐 있었고 나치깃발은 없었던 것을 보아 그가 나치당원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몬테비데오 시내에 있었다. 지금 <다음면에 계속>

德行(덕행)

김경태(55, 펜실베이니아)

德(덕)이라고 하면, 나전어로 Virtus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기질과 능력으로, 사회에서 道德性(도덕성)으로 발휘된 행위를 말한다. 이런 德性(덕성)은 타고난 天分(천분)이나 또는 사회생활에서 얻은 도덕적인 훈련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런 德人(덕인)은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처세한다.

이런 덕은 인간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氣品(기품), 意志(의지), 溫情(온정), 충성, 용기, 명예, 성실, 謙虛(겸허) 등의 德目(덕목)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덕을 든다면 思慮(사려), 즉 생각이 깊은 사람(thoughtful person), 또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正義(정의)롭고 義俠心(의협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악자를 도와주는 마음과 義理(의리)나 인정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그것은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행위이다.

의리라고 함은 진실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관대한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冠婚喪禮(관혼상례)와 같은 경우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한다. 관혼은 빼어 먹어도 상례를 지나치면 그렇게도 유감스러운 일이 없다고 한 Oscar Wilde의 獄中(옥중)기 De Profundis(深淵, 심연에서)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불후의 명작 God Father에서는 마피아 조직사이의 의리를 본질로 삼은 것이다.

현실적 삶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儒敎思想(유교사상)에서는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주어진 현실에 매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義(의)를 實踐(실천)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리란 관념적인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불변의 도덕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수시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변화 속에서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동기인 盧鎔冕(노용면)은 타고 나서부터 이렇게 義理(의리)를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가 자율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칸트의 윤리사상에 따르면, 그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 도덕률을 세워 여기에 복종하는 자율적(autonomous)인 것, 말하자면 다른 것에 제약 받지 않고 스스로의 행위를 自制(자제, selfrestraint)하는 행위이다. 그는 성하지도 못한 老驥(노구)를 이끌고, 항공편으로 병석에 있는 서부의 친구(박학도)를 문병한다던가, 중부에 살던 친구(김공근)의 장례식에도 여러 시간 자동차를 운전해서 참석하는 그 극성은 대단하다. 얼마 전 나의 경동맥 수술 시에도 빠지지 않고 문병해 주는 그의 우정은 고마웠다.

因果應報(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다. 말하자면 善因(선인)에는 善果(선과), 惡因(악인)에는 惡果(악과)로, 因果(인업)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여 業報(업보)가 있다는 말인 果報(과보, retribution)를 뜻한다. 종교에서는 지상의 善行(선행)은 천당에서 복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상에서 이미 恩惠(은혜)를 듬뿍 받은 듯하다. 그가 우리의 論壇(연단)에 이룩한 時計塔(시계탑)의 공은 누누이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것 뿐인가, 네 자식들도 모조리 일류대학과 일류의

과대학을 나오고, 일류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른데서 좀처럼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사람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나이 또래가 이제는 傘壽(산수, 80세)를 지냈으니, 그의 특유한 음성의 起伏(기복)을 탄 迫力(박력)이었던 녀두리 抑揚(억양)도 다소나마 느슨해지고, 步行(보행)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明哲(명석)한 사고력과 날카로운 獨眼(독안)은 아직도 광채를 발하고 있다. 이제 백발이 된 사모님 張(장)여사는 귀도 좀 멀지만, 언제나 그 온화한 표정과, 포근한 포옹이 溫精(온정)을 느끼게 한다.



내가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우리 아들 집에 있을 때, 우리를 방문한 노용면 학형 내외와 우리 부부(오른쪽)

<전면에서 계속> 우루과이 정부는 이 배를 인양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 자금난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그날 오후 석양에 우리 배는 이 여행의 마지막 항구인 Rio de Janeiro로 항해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바바라 라는 낙천적인 브라질 댄스교사를 따라 스텝을 밟았는데 그녀는 마지막 레슨이라고 무척 서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동안 거의 매일 알젠틴 청년으로부터 스페인어 레슨을 받았으며 그의 마지막 수업은 역시 우리들을 슬프게했다. 모두들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며 그동안 점이 꽤 들었다. 이종두, 고영희, 송용덕 부부들은 그동안 많은 여행에서 쌓은 경험으로, 멋진 춤과 워트로 우리를 항상 지도해 주었고 특히 이종두 군의 해박한 스페인어 실력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조한원 군이 최면술에 걸려 최면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최면술의 위력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또 하나 하늘이 도운일이 있었다. 승객중 뉴멕시코에서 오신 두 신부님과 캐나다 사람 Deacon을 모시고 매 일요일 선상 미사를 참배할 수 있었는데 이 미국 신부님이 유창한 서반아어와 영어로 동시에 미사를 수행하여 미사 참배한 많은 승객은 물론 라티노 승무원들을 경탄케 하였다. 그 신부님 이름은 Michael Kipe였다. 계속 흔들리는 배를 타고 이를 더 항해했으나 우리는 꽤 익숙해졌고 입항

이로' 즉, '정월의 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개인소득 \$9,000, 50%가 소학교 교육 수료, 백인 45%, 혼혈족 35%, 흑인 5%, 아세아인 3% 나머지는 원주민이고 인종 차별이 없다고 한다. 한국국민은 5만, 주로 쌍 과울로에 살며 의류 봉제 사업에 종사하며 리오에는 단지 35 한인 가정만 살고 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선하여 부두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예약해 둔 여행사 안내원이 나타나지 않아 뉴욕 아시아 투어 정수자 사장이 준 현지 여행사 전화번호와 안내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으나 도무지 오리무중이라 현지 전화정보에 문의하려고 했으나 영어가 통하지 않고 우리는 폴트갈 말을 할 수 없어서 우뚝하니 서 있었는데 우리들을 본 브라질 사람이 선의를 베풀어 결국 연락이 되었는데 한 시간 투어시간 손해를 보게 되었다. 나중에 현지 안내원은 정수장이 9시라고 해서 자기는 시간에 맞게 나왔었고 정수자씨가 우리에게 준 전화 번호는 자기 회사 번호가 아니라 오리발을 내밀었다. 우선 콤포우(Corcovado)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상당히 가파른 언덕을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양쪽에 열매달린 나무숲이 울창하고 덥고 습한 기후였다. 존 폴 교황이 순례했던 재림자, 예수 동상까지 등장했다. 이 예수 동상은 1931년 브라질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콘

크리트 상이다. 높이가 거의 비슷한 30미터이다. 전부터 나는 돌을 깎아 만든 석상인줄 알았는데 콘크리트 표면 위에 작은 사기 조각을 붙여 마치 석상같이 보이도록 했다. 이 동상 뒤 내부 작은 채플에서 마침한 30명의 신도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여기 동상 전망대에서 리오 항구와 코파 카바나 해안, 이페네마 해안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 경관은 정말 기막히게 좋았다. 코파카바나 해변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점심 맛있게 먹었다. 여기서 마신 현지 맥주도 맛이 좋았다. 점심 후엔 교황 존 폴이 순례한 피라미드형 중앙 성당에 잠시 참배 후 '빵 데 아수카' 정상에 케이블카로 올라갔다. 이곳에서 보는 오후 경치는 또한 아름다워, 리오 시내와 콜코바도 산이 멀리 보

이며 유일한 항공모함이 항만 가운데에 떠 있었다. 다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전에 본 007 영화 'Moon Raker'에서 거인이 이 케이블카의 케이블을 자기 굵이 빨로 끊는 끔찍한 장면이 생각났다. 그 영화는 실제 이곳에서 촬영했다 한다. 다시 버스를 타고 굴을 지나 이페네마 해변에 왔다. 현재로는 이 해변이 고급주택가이고 뒤에는 호수, 앞에는 해변이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이페네마 해변은 보사노바의 명곡 '이 페네마의 처녀'로 더 유명해졌다. 레브론의 고급 상가가 연결되어 있으며, 코파카바나는 70년전 후로 사양길에 들어섰고, 마약, 소매치기, 동성연애인들이 들끓고 이페네마와는 터널만 통할 수 있고 이 두 해변은 높은 산과 군대기지가 분할, 격리해 놓고 있다. 마지막 저녁식사는 이 해변 뒤쪽목 식당에서 남미 특이한 여러가지 육식으로 맥주를 곁들여 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를 실은 버스는 시간관계로 이곳의 빈민촌이며 삼바 칼라발 학교가 있는 Favela 촌을 들리지 않고 곧장 비행장으로 우리들을 태워가고 있었다. 이 빈민촌에서 태어나 소학교 4년 교육만 받은 구두 닷이 소년으로 후일 대통령이 된 Lula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항상 인기가 좋았는데 재선까지 모두 8년 통치후, 많은 사람들이 3선 출마를 권했으나, 인기 만료후 인기도가 87%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3선 출마를 끝까지 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신은 오로지 한 번만 돕는다"고... 그래서 아직도 그는 인기가 대단히 높고 국민들이 그를 'Lucky Lula' 라고 호칭한다고 한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40몇 년 전 해군에 복무할때, 스페인말을 전공한 동료 해병장교 진 소위로부터 배워서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스페인말 노래 '기사스'를 혼자 읊미하며 지금쯤 그는 꿈꾸던 백만장자가 되어 이곳에서 호화로운 별장에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 그날밤 자정 달라스행 비행기에 고단한 몸을 실었다.

2) 아직도 개혁의 여지가 많은 곳이고 특히 브라질은 2002년에 발견된 막대한 해저 석유 매장량과 무진장한 세계 최양질의 철광, 땅이 넓고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철, 보석, 석유, 재목 등) 먹을 것이 많고 인종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할 것 같이 보였다. 다만 저질의 공립교육 개선이 급선무라 한다.

3) 남미 제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갈등이 심하여 가진 자가 군부와 결탁하여 독재정권을 형성하여 안 가진자를 핍박하고 있다가 자유 진보 개혁파가 정권을 잡으면 결국 사회주의가 만연되고 이를 (무료교육, 복지 혜택, 무료 의료 등) 국가재정이 받들지 못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다시 독재가 정권을 잡게 된다.

4) 이런 악순환을 잘 균형 잡으려면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서,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사욕 없는 정치가를 국민이 선출하여야 국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재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이곳 사람들은 대개 유순하고 인정이 많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이고 좁게으르다고 할까, 뇌물이 통하고 빈부의 차가 심하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동양 사람의 신용도가 매우 높아 동양 사람이 처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백만 명이나 되는 일본 이민자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공의 결과인 듯하다. 현재 여성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 2016년에 있을 올림픽 경기 준비(운동장, 도로, 선수촌 등)를 많이 한국 기업에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남미 삼국 중에서 경제가 제일 활발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6) 원주민(Indio, Indian)들의 단어가 한국말과 비슷한 것이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면, 예쁘다>예쁘네, 팔>가시내, 헛간>헛쟁, 빵>빵.

Linguistics와 Genetics로 옛날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Behring 해협을 건너 남미까지 와서 정착한 것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던 조한원 부부와 그들 사진을 보내 준 장인호 군에게 다시 한 번 감사사를 드린다.



할 때 석양에 비친 Rio de Janeiro 항의 아름다운 경치에 현혹되어 넋을 잃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 항구에 들어오면서 푸른 숲으로 덮인 섬들 사이로 멀리 보이는 높은 흰건물들이, 푸른숲으로 덮인 높은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내가 가 본 세계 삼대 미항중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였다. 폴트갈 사람들이 처음 이 항구로 들어올때 일월달이었는데 넓은 강의 하구로 착각하여 '리오 데 자네

와 코파 카바나 해안, 이페네마 해안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 경관은 정말 기막히게 좋았다. 코파카바나 해변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점심 맛있게 먹었다. 여기서 마신 현지 맥주도 맛이 좋았다. 점심 후엔 교황 존 폴이 순례한 피라미드형 중앙 성당에 잠시 참배 후 '빵 데 아수카' 정상에 케이블카로 올라갔다. 이곳에서 보는 오후 경치는 또한 아름다워, 리오 시내와 콜코바도 산이 멀리 보

2011년 Annual Convention를 마치고...

이영인 ('86; 대뉴욕, 2011 Convention Co-Chair)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린 제28회 Scientific Convention은 동부와 서부의 중간에 위치한 Denv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인용 미주 동창회장과 주요 임원진들이 대뉴욕지구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Rocky산맥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Colorado Broomfield의 Omni Interlocken Resort에서 서울과 미국의 동문들이 함께하는 4박5일의 뜻 깊은 만남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회장인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발 1650m의 고지에 있었지만 정인용 회장의 세심한 준비와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지도력으로 28회 Convention

를 13년간 역임하신 조세진 동문께서는 서울의대인의 조화로운 Leadership을 주요관점으로 Recent Advances in Medicine (Day 1), Clinical Medicine Related to Top 10 Causes of Death Among Koreans (Day 2) &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Medicine: Noblesse Oblige (Day 3)의 주제에 대해 뜻 깊은 강연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Special Guests,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봉사를 하시는 재미동문, 그리고 재미동문 2세 학자가 참여한 CME 프로그램은 원숙한 화가가 화폭에 꼭 필요한 색과 모양을 절묘하게 구상한

에서 150분이 참석하셔서 컨벤션의 첫 모임인 환영 리셉션을 하였습니다. 높은 고지에서 휴양지의 분위기를 느끼며, 정선된 음식을 들며 정인용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동문들과의 해후, 새로운 만남, 2세 동문과의 family reunion 등으로 영화의 멋진 party scene을 연출하였습니다.

열심히 강의와 토론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님이신 이명철, 서정선, 신희영 선생님의 강의를 통하여 모교의 연구결과가 세계 의학계에 지속적인 영향(impact)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종식, 강유구, 최인섭 동문들께서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서울의대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시는데 공헌하셨습니다. 김백년 동문의 자녀인 Dr. 김현주는 미주동창회 2세대동문의 한미 의학계 상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식사를 하시며 서로 good morning 인사를 나누었고 6시 30분 부터 정인용 회장님께서 Welcome & Opening Address와 Recent Advances in Medicine에 관한 CME session moderator를 해주셨습니다. 연사로는 서정선(작고하신 서병설 '47 학장님 자제, Professor of Bio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EO of Macrogen Inc; Genome-wide Map of Common and Rare Variants in Asian), 최인섭('72; Professor & Chair,

별도의 강의실에서 진행된 Special Lecture에는 성악과 교수이신 국영순 (Mrs. 이명희 '66)께서 Basic Voice Technique에 대하여, 이재풍(64)동문께서는 "What you always wanted to ask a dermatologist?"에 대하여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11시 30분부터 70여 분은 Coors Brewery와 칼리지 타운인 Boulder 관



회장님, 강신호 명예회장님, 학장님, 김주영동문, 진태훈이사님



Registration

Scientific Chair

정인용 회장님과 함께

은 5일의 일정이 한 나절로 느껴지고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 할 정도로 좋은 추억을 간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현재 Virgin Island St, Thomas에 거주하시는 김갑균(54) 동문님 내외분을 비롯하여 200여분의 재미동문과 가족, 관계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멀리 서울에서 오신 Special Guests의 관심과 후원으로 2011 Convention은 Global Convention이 되었습니다. 강신호 서울의대 총동창회 명예회장님(52), 박용현(68) 현 동창회장님, 이명철 서울대학교 부총장님(73), 임정기(75) 모교 학장님,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75), 서정선(76) 교수님, 신희영(80) 연구처장님 등, 학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동문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Scientific Chair이신 조세진(71)동문의 초청에 먼길을 와주셨고 훌륭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여러 동창회 사업 중에도 김종화 부회장님, 김용재 이사님, 진태훈 이사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저희 미주 동문들과 동문회의 근황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LA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소의 박순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국제업무 지원팀장인 이승희님께서 세계로 진출하는 병원과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왕성한 학술업적과 명문의대의 소아과 주임교수

것처럼 청중의 관심을 흡입하였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한 두 분씩 행사장에 도착하고,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Fashion 감각을



살린 golden orange color의 서울대 로고가 선명한 wind shirts, badge holder와 tote bag이 선물로 준비되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는 Delegate Meeting이 진행되어 미주 동창회의 vision과 사업계획이 토의되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야외 수영장 옆에 있는 Pavilion

Interventional Radiology, Tufts Medical School; Endovascular Treatment of Acute Stroke), 임종식('57; Professor, University of Uniformed Service; Prostate Cancer Today: Advances & Challenges), 강유구('71; Professor, Thomas Jefferson University; Liver Xenograft Transplantation), 김현주 (김백년 '58 동문의 자녀; Medical Director, PFT Lab, University of Minnesota; Clinical Trials for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이명철(Professor of Nuclear Medicine, Vice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 Trends and Future of PET), 신희영(Professor of Pediatrics, Hemato-Oncology, Vice President of Research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 Status of Umbilical Cord Blood Transfusion),

광을, 다른 70여 분은 1600m-1700m의 고지에 있는 골프 코스에서 골프 아웃팅을 하였습니다. 고산지대인 이유로 기후가 급변하여 천둥, 번개, 폭우로 경기가 두 번이나 중단되었는데도,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경기를 마감해주신 동문선배님 내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녁모임은 골프 코스가 내려다보이는 Foyer에서 칵테일 리셉션후 서울의대 4학년 학생들의 교기입장 퍼레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서울의대 재학생과 미국에서 수련중인 동문들을 대상으로 미주 동문 mentor들과 face-to-face meeting을 통하여 career development를 도모하는 SNUCAA of NA Traveling Fellowship 수상자로 선정된 4학년 윤정기, 윤수지, 조승우 예비 동문으로 후학의 교육에 관심과 성원이 지내하신 정인용 회장님께서 학생들에게 award를 증정 하셨습니다. 정 회장의 인사말과 서울에서 오신 강신호 명예회장님, 박용현 회장님, 임정기 학장님, 정희원 원장님 등 내빈 소개와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춘 전 미주동창회 회장님께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진행된 Entertainment Session은 댄스 플로어에 운집한 동문 커플들이 음악과 춤으로 흥겨운 동문축제를 연출하였습니다.

7월 3일 (일요일)

6시부터 아침인사와 함께 차를 마신 후, Clinical Medicine Related to Common Causes of Death among Koreans에 대한 CME Session을 박승균(61)동문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연사로는 Dr. Lydia Choi(김기태 '58 동문의 자부; Associate Professor of Surgery, Wayne State University; Management of Palpable Breast Mass for General Practitioner), 김원정('75; Professor of Childhood Psychiatry, University of Pittsburgh; Lessons from Virginia Tech. Tragedy),

한미섭 (작고하신 한동세 '54 모교 교수 동문자제, Associate Professor of Urology, Johns Hopkins University; Implication of Surgical Margin Status on Prostate Cancer-Specific Survival)의 최신의학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session이 끝날 때까지

Scientific Sessions



신희식('68: Chief of Neurology, Kaiser Permanente; Cerebral Vascular Accident :Stroke), 고중훈(Adjunct Clinical Professor, SNU BhunDang Hospital: PCI or CABG in Coronary Artery Disease), 박승균('61: Professor of Psychiatry, SUNY Buffalo; Psychology of Suicidal Behavior), Steve H Kim(김기태 '58 동문 자제, Associate Professor of Surgery, Wayne State University; Pancreatic Cancer-A Brief Update), 정희원('75: President & CE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ofessor of Neurosurgery; SNUH Historical Perspective & Natural History of Benign, Incident Asymptomatic Brain Tumor), 석창호('72: GI



Consultant, New York: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GI Cancers)이었고 한국인에게 주요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여러 질병들에 대한 포괄적인 강연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과 미국의 한국인의 발병이 지역과 시간의 흐름에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주제는 재미동문이었기에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정희원 원장님의 Brain Tumor의 최신 지견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역사와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강의는 미래의 더 큰 발전을 시사 하셨습니다. Dr. Lydia Choi와 Dr. Steve Kim은 2세 동문 부부로 앞으로 모교 학생들의 미국 실습 교육과 미국 진출에 공헌하기를 기대합니다.

Special Lecture는 이흥빈('64: Wine, To Enjoy or Not To, That's the Question!) 과 임혜기 (Mrs. 임준형 '73: The Concept of Diaspora Literature and Hypertext Literature) 께서 해주셨습니다.

오후관광은 로키산맥으로 향하였고 골프 아웃팅도 늦은 오후의 비바람이 시작하기전 무사히 끝났습니다. Vista Course는 산등성이를 따라 만들어져, 웅장한 남성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첫째 날에 이어 백승원 동문이 메달리스트를 하였는데 전반 9홀을 1 언더 파로 끝내어 아마도 곧 senior PGA tour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주한 일정에도 오후 5시 30분부터 25분들의 동문께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Bi-Directional Medical Care between USA and Korea에 대한 고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저녁모임은 Talent Show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임정기 서울의대 학장님과 정희원 서울대학교 병원장님의 연

설후 시작된 탤런트 쇼에는 무려 10 팀 이상의 참가자가 접수되었습니다. American Idol의 심사위원을 능가하는 전문 심사위원들(정희원 원장님, Sunny Boys Rock Band Founder 이셨던 정인용 회장님, 성악가 Mrs. 국영순, 작가 Mrs. 임준형, 4학년 학생 윤수지) 앞에서 Mrs. 김성환(71)의 열창, Mrs. 이종국(58)의 아리랑, 경북궁 타령을 주제로 한 고전무용 (인기상), 백승원 ('79: 대상), 서울의대 학생들(우수상), 귀한 base 목소리의 문광재(68), Mrs. 추재옥(63), Mrs. 권오기(78), Dr. 김주평(68) 등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노래경연 사이에는 강태수(71) 동문부부의 볼룸 댄스 시범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백승원(79)동문부부의 1909-1910년 French 소설을 1986년 Andrew Llyod Webber가 뮤지컬로 기획한 The Phantom of the Opera를 배경음악으로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 가 있었습니다. 백승원 동문은 Phantom을, Christine 역을 Mrs. 백승원이 맡아 커플 댄스를 공연하였습니다. 우리의 탤런트 쇼를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이 보았다면 얼마나 흥겨웠을까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andante, moderato, allegro, & presto로 점점 빨리 가는 것이 느껴졌고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7월 4일 (일요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새벽 6시부터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김기태(58)동문께서 moderator를 하시며 Noblesse Oblige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사로는 강신호 명예회장님 (Noblesse Oblige: One must act in a fashion that conforms to one's position), 임정기 학장님(ELSI in Medical Education-Dean's Report), 이영인('86: 작고하신 이한구 '54 모교 교수 동문 자제, Associate Professor with Tenure & Vice Chair, Orthopedic Surgery, Columbia University,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 Green/Globalization Project: Past, Present and Future), 최영자('66: Professor of Pathology, Yale University, CT; Progress Report on Charitable Community Service), 흥건('70: Radiologist,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IL; International Medical Missionary), 이명

The Rocky Mountains



Evening Banquets



철('73: Vice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Nuclear Medicine; New Organization Enhancing Medical Education & Research; Edward Kitae Kim Scholarship; Euishin Edmund Kim Scholarship), 신희영('80: SNU Research Fund Raising Need Assessment; Children's Hospital Project in North Korea), 이승희(President's Off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ation and Practical Utilization), 박세록('63: Professor Emeritus, UC Davis Medical School; Health Care Network for Koreans Living in China), 조세진('71: Professor Emeritus & Past Chair, Pediatrics, Kansas Medical School)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대인의 봉사정신 (강신호 명예회장님), 모교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교육 (임정기 학장님),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이명철 부총장님, 이승희 님), 서울대학교 연구장려 (신희영 연구처장님), 미국 지역사회봉사 (최영자 동문), 세계의료봉사 (흥건, 박세록 동문), 북한 소아병원 건립 및 진료 (신희영 연구처장님), 모교와 미국의 최근 졸업생의 미국 진출 도모하는 globalization project (이영인 동문), Noblesse Oblige (조세진 동문) 등의 주제는 서울의대 동문의 모교, 지역단체, 민족, 세계에 대한 봉사의 의지를 투사하였습니다. Special

lecture는 환자 진료를 하시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Maestro 최진훈 동문('70: The Orchestra-Focusing on the Arrangement of Seating), Mr. John Baek, CFP (Investment Strategies in Ever Changing World), 최광희 동문('76: How Age Affect Our Face?) 께서 해주셨습니다. 오후 관광은 덴버 시내를 방문하였고, 골프행사도 순조로이 진행되었습니다. 후반 9 홀을 38 stroke로 마무리하고 82타를 기록한 서만길 동문께서 메달리스트를 하였습니다. 저녁 Grand Banquet에는 정인용 회장님(71)께서 문대옥(73) 신입회장님께 서울대학교 교

기를 전달하는 이 취임식 행사와 문대옥 신입회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헌신적으로 미주 동창회의 사무를 담당하셨던 김혜경 사무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 후 동문들은 답소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음악과 커플 댄스로 마지막 연회를 장식하였습니다.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는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동문, 가족, 총동창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대가 함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진정한 축제이었습



니다. 연수강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13 Credits)는 Medical Leadership & Academic Medicine의 주요 논제를 명확하게 풀어헤친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강창홍 총무께서는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계속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조속한 완쾌를 기원합니다.

준비과정에서 Convention을 마칠 때까지 봉사하신 석창호(72) 부회장님, 오용호(72) 재무, 강창홍(71) 총무, 서인석(73) 장학위원장, Mrs. 임준형(73), 김혜경 사무장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컨벤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총동창회 연례만찬 및 Silver Project 유럽 여행에도 참석하였고, 여러 번 호텔 내의 행사장소 및 주변 관광지 등을 직접 점검하시며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Post-Convention Tour를 직접 인솔하시는 등 organization leadership의 모범을 보여주신 정인용 회장님과 humor, 학식, 때로는 authority (charisma)로 청중을 감동시키고 'Quality'를 강조하시며 최고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조세진 학술위원장 두 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로 컨벤션 후기를 마칩니다.

이번 덴버의 근교에서 있었던 의대 동창회 컨벤션 기간 동안 강의를 통하여 말씀드린 내용을 이번 모임에 참석하시지 못한 동문들을 위하여 시계탑에 게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아드려 몇 자 적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약 20여 나라를 다니면서 의료봉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보다 일찍부터 많은 나라를 다니신 전희근 선배님을 비롯하여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도 지난 12월에 미시간에서 외과를 은퇴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장기간 수고를 하시는 장현식(70) 동문이 있는데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이제 은퇴를 이미 하신 동문님들이나 앞으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간추려 적어봅니다.

그러면 먼저 왜 외국에까지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가 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방문을 하는 본인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회가 되고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누구보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본인이 여러 다른 나라와 지방을 방문함으로써 많은 새로운 경험과 남을 도우면서 생기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며, 그동안 살고계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운 겨울을 피하시거나 더운 여름의 기후를 피하여 쾌적한 지역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깨치고,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특히 일생동안 배우고 환자를 치료하고 후학을 가르치신 경험을 그대로 사장하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오랫동안 의학경험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의료보험문제도 또는 손이 떨어져 외과수술을 하시기가 힘들어 개업을 종료하셨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은 외국의 레지던트를 가르치시는 기회를 통하여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직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과 같이 외국을 방문함으로써 비록 고급호텔과 최고급의 식사는 하시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조금 열악한 상황아래서 부부간의 결속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굳게 맺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방문할 것인가의 질문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우선 <http://www.MissionFinder.org>를 들어가시면 각종 기관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전문 분야를 강의를 비롯하여 의사들이나 수련의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려면 mei.director@cmda.com Medical Education International으로 부터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관으로 선교병원을 방문하시려면 World Medical Mission, Samaritan's Purse를 통하여 가실 수 있고 828-262-1980을 전화해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얼마 동안을 외국에서 지내실 수 있는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 기관이 한 달을 권하지만 일주일동안의 단기 방문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어떤 병원을 또 어느 나라를 선택하실지는 자세히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공한 분야를 교육을 통해서 사역을 하실런지, 제가 처음 경험하였듯이 이제껏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청진기를 사용하여 임상진찰을 하실 것인지는 큰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는 어떤 숙박 시설이 주어지는지, 일반 호텔에 묵으면서 낮에만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지, 천막을 치고 현지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도 봉사하시는지도 차이가 있기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실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족이 같이 오는 것

을 허락하고 숙박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의료계통 전문직만 필요로 하므로 가족이 같이 가는 것이 어려울지도 알아 보셔야겠지요. 대부분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합 경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를 알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보는데 통역해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서반어 등을 현지 언어

해외 의료봉사를 위한 도움의 말씀

홍 건(70, 시카고)

를 잘 구사하는 의사만을 구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 따라서는 필요한 미리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방주사는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 Yellow Fever 주사라든가 typhoid 예방을 하시고, Malaria 예방이 필요한 경우 떠나시기 얼마 전부터 약을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비약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쓰실 해열제, 소화제, 설사약 등을 준비하시고 평소 드시는 약은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안경은 오래된 것을 하나 비상용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현지 현찰을 바꾸셔서 잔돈이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redit card를 받지 않는 나라가 많으므로 어느 정도 필요한 미화 현찰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더럽지 않은 새 지폐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가실 것 중에, 직접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경우 여러 기관을 통하여 약품을 기증 받거나 구입하여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고, 의료 장비는 부겁고 세관 통과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용으로 라면이든가 peanut butter를 가지고 가서서 급할 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전지, 모기약, 일기장을 가지고 가서 매일 기록을 하는 것도 다음에 도움이 됩니다. 가방에 여유가 있으면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선물용 옷가지 등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지요.

처음 도착하여서 여러 가지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나 초청하신 분에게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통역을 하거나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에게 사례를 하는 경우 꼭 초청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현금을 과도하게 주거나 했을 경우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에게서 같은 것을 기대하는 버릇을 들게 하면 오히려 폐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위생 사항으로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마실 때 정수가 없으면 끓여서 마시고, 과일은 껍질을 벗기는 것을 선호(예: 바나나)하며 음식은 채소를 주의하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깨끗이 보여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지에서의 태도, 해야 할 일(Do's) 겸손한 태도 / 사랑의 표현 / 밝은 표정과 미소 / 느긋한 태도 / 참을성 있게 태도 / 현지법 준수 / 그나라의 문화를 존경하고 정치, 종교 등을 존중할 것 / 시간 준수 / 현지인과 교제시 꼭 미리 상의 / 초청한 분에게 숙식비 지불 / 식사 준비를 도울 것 / 현지 사역자 격려 / 경건생활 열심. 하지 않아야 할 일 (Don't)

우월감 / 건방진 태도 / 침울한 표정 / 성급함 / 자기 말만 하려는 태도 / 현지법 무시 / 그 나라의 문화, 정치, 종교 등을 공박하는 일 / 현지인 시간 안 지키는 것을 책망 / 현지인에게 직접 선물, 현금, 주소를 알려줌 / 초청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 / 식사 준비에 불편을 끼치는 일 / 현지 사역을 경솔하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 / 관광 온 듯한 가벼운 인상을 주는 일.

그렇다면 현지에서의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의 밝은 미소와 상냥한 언어로서 먼저 현지인들의 호감을 살 수 있고 비록 바쁘고 많은 환자를 다루게 된다해도 신경질을 내거나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겠지요. 예의바른 태도로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다룬다면 모든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간단히 단기 방문하는 의료인의 태도를 십계명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도움을 주러 온 것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우리가 아는 미국적 상식이 현지에서는 맞지 않아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한다.
3. 내가 필요한 약품과 의료 장비가 없어도 있는 것으로 최대 이용한다.
4. 내가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것을 배울 자세를 갖는다.
5. 현지 문화, 법과 제한조건을 파악하고 적응하며 비난을 삼간다.
6. 내가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힘써 일한다.
7.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며 최선을 다한다.
8. 현지 의사, 병원의 사역자들을 돕고 설립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힘쓴다.
9. 현지 병원의 설립 목표를 위해서 나의 고집과 의견을 감추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
10. 무엇보다도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몸소 실천한다.

제 경우에는 선교병원에서 받중에 급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방사선과 의사라도 와서 빨리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산모나 아기가 다 죽는다는 급한 경우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수술장에 가서 차례대로 개복하여 태아를 꺼내는 작업을 배우고 언제든지 위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지에 서의 경우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전문분야인 방사선과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전 처음 자녀들을 키워놓고 해외 의료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에 전화를 걸었을 때 반기면서 대답하는 분이 전문이 방사선과라는 말을 들으면 'No thank you'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

러서 이제는 웬만한 작은 선교병원에도 초음파 기계가 들어가 있거나 골설치를 하게 되고, 방사선과 전문의사가 없는고로, 가정의, 내과, 외과 의사들이 직접 관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곳을 방문하여 기계를 사용하고 관독하는 기술을 단기간에 알려주는 일이 보람된 일이고, 또 큰 병원은 CT Scan이 들어가기 시작하여 처음 시작할 때 여러모로 도와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또는 작은 나라의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과와 핵의학의 강의를 통하여 의과대학생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들을 지도하는 것도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의 라진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방금 촬영한 CT scan을 직접 읽고 북한 의사들과 상의하곤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Kenya를 방문했을 때 Kijabe 병원이라는 곳에서 만난 연세의대 졸업하신 나이 드신 병리전문 의사 선배님을 만나 뵈었는데, 12명의 미국, 캐나다의 병리 전문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일 년에 한달씩을 순번을 정하여 일을 하는데, 지난 12년간 매년 4월 한 달을 Kenya를 방문하여 병리 조직검사를 하신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인근 여러 나라 13 병원에서 수술로 떼어난 장기와 조직을 보내오면 현미경검사를 마치고 진단을 알려주는 센터의 역할을 하고 계신답니다.

병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병원이 의외로 많이 있으니 과연 내 전문과목이 필요한지를 직접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Pan-African Academy of Christian Surgeons (PAACS)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여럿 있어서, 그곳의 사정으로는 일반외과 수련의 과정에 제왕절개를 비롯한 산부인과 수술은 물론, 비뇨기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을 다 배워야하는 관계로 미국에서 단기로 방문하는 이상의 전문 의사들로 부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단기이건 장기이건 외국에서 가는 의사가 하루 기껏 5 내지 10 환자를 수술을 할 수 있다면, 10명의 외과 레지던트를 길러내면 하루에 50내지 100명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래를 내다 볼 때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동기 장현식 동문이 가있는 에티오피아의 명성병원(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은 그곳에서 Korean Hospital이라고 알려져 있고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명망이 높고 이제 의과대학이 건축 중에 있어서, 모든 임상의학의 전문의는 물론 기초 의학의 권위자들이 시급히 필요한 곳입니다.

참고로 제가 방문했을 때 보면, 고도가 해발 1,000 미터 이상 높은 산악 지방으로 모기가 없어 말라리아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고, guest house에 한국에서 오신 여집사님이 정성으로 한국 음식을 아침부터 세끼를 된장국을 비롯하여 김치와 맛있는 음식을 들수 있고, 깨끗한 숙박 시설과 한국에서 오신 많은 젊은 자원 봉사자들이 일을 같이 하므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쾌적한 조건이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방문을 해보시고 과연 견딜만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달씩이던지 오랫동안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게 집전화 630-654-3145 혹은 이메일 Kuhn_hong@yahoo.com로 연락을 주시면 궁금한 것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동문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해외 의료 봉사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11년은 우리들의 의대 졸업 50주년이다. 금축제를 전후해서, 걸어 온 삶을 회상하며 서로 치하하고 자축하는 우리들은 이제 75세 전후의 '古稀'들이다. 나이로 보면, 감히 못할 듯한 2,600 여 마일의 장정을 섰듯 9박 10일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참가한 12명 동기들 및 그 가족들의 건전한 심신이 어우러졌기 때문이었다. 오는 10월에는 한국에서 축하 행사 및 여행을 하겠지만, 그전에 미국의 서남부 지역의 여행을 여행사와 합동으로 계획해서 소위 '테마맞춤 여행'을 한 것이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며 1) 국립공원, National Monument 등지를 보고 싶었고, 2) 인디언과 관계된 곳을 방문하고, 3) 인디언이 남겨놓은 암석 예술을 보고, 4) Sedona 지역, 라스베가스 등지를 보기로 했다. 우리들의 형편에 알맞는 안전한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 김유홍은 콜로라도 전역을 몇 번이고 순방한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번 여행 준비에 큰 일조를 했고 덕분에 우리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경비행기 탑승 관광 같은 것을 생략할 수 있었다. 4월 29일-5월 8일(10일) 사이의 여행이라 낮에는 더러 덥기도 하고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기도 했지만 비도 오지 않고 날씨는 너무도 좋았다. 또 비성수기여서 사람들은 붐비지 않았다.

모두 23명(부부, 개인 포함)이 여행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김유홍, 손기용, 송홍일, 이동해, 이한수, 장성환, 정철웅, 최공창, 황현상, 한국에서는 심영보, 이종현, 조두영이 왔다. 첫날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동기들의 호의로 호텔 근처 식당에서 푸짐한 음식 대접을 받았고, 많이 쌓였던 이야기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행 중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많은 지역을 구경한 것 같다. 아침에 일찍 떠나 저녁 늦게 돌아오는 하루 12시간의 여행이었다.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호텔로 돌아오곤 했다.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 등지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기가 지매일 거의 300마일 씩 달린 셈이다. 대형 버스였기에 자리는 넉넉하고 비교적 편하기도 했다. 때로는 포장되지 않은 곳을 달리기도 하며 돈 내지 않고 '정신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었다. 하루는 Highway Rte 12의 해발 9600ft의 산길을 달리며 아직도 녹지 않은 눈도 보고, 가끔 절벽가를 달릴 때는 아찔한 기분도 들었으나 운전사의 침착한 솜씨에 마음은 한결 놓였다. 매일 걸어야 할 거리도 적지 않아 때로는 16,000보 이상을 걸어야 했다. 심영보나 황현상 그리고 정철웅은 나는 듯이 쉽게 걸었고, 부인들은 물론 몸이 불편한 동기들도 버스 안에 한 분도 남아있지 않고 잘 따라나섰다.

호텔은 중급이상이지만 때로는 2층으로 된 호텔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시골이라, 한 두어 번은 2층으로 오르는 승강기가 없어 '늪이'들이 2층까지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었다. Moab이라는 도시에서는 'Super-8'이라는 호텔에 묵었는데, 이름을 보고 약간 실망했지만 호텔 자체는 좋았다. 이름만 보고 나쁘려니 한 우리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 음식은 '국제적'이었다. 미국, 한국, 중국, 멕시코, 서부 음식, 그리고 더러는 버거킹이었고, 한번은 샌드위치를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먹었다. 이중에서도 'country music'을 들으며 ranch 음식을 먹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먹는 것 자체 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들이 없었다. 한국인 가이드는 한국인들이 자주 들리지 않는 곳을 가서 그런지 약간 힘들어 하는 것 같았다. 멕시코 운전사는 아주 좋았다.

인디언들은 '글자'를 남기어 놓지는 않았지만, 바스켓, 도자기, 암석예술 등 많은 것을 남기어 놓았다. 이 중에 암석예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야겠다. 소위 인디언 암석예술(Rock Art)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위에 그림을 그린 그림(pictograph): 바위를 쪼아서 삭인 암석조각(岩石彫刻, petroglyph)과 이 둘을 합친 것도 있다.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설명이 필요 없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다. 주로 사람의 모습이나 동물의 모습을 하고, 때로는 기하학 양식이거나 천문

21개의 볼텍스(Vortex)중 4개가 모여 있어 인간의 정신수양에 가장 좋다는 곳으로 정평 나았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창조한 뒤 세도나에 안식처를 삼으셨다"라는 말이 있다. 세도나는 인디언들의 성지였으며, 인디언들이 서부 개척인들로부터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한 곳 중의 하나이다.

V-bar-V petroglyph site:
세도나 근처에 있고 Coconino 국유림(National Forest) 안에 있는 고대 인디언 유적지를 방문했다. 오랜 동안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고, 1150-1400년 사

61년 동기 미 서남부 여행

손 기 용(오하이오), 이 한 수(대뉴욕)



학적인 암석조각 등을 본다. 우리가 미국의 남서부 지방을 여행하며 본 것은 주로 암석조각이다. 이중에 미국 남서부 인디언의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서 피리를 불고 다니며 보따리 장사도 하였지만 처녀들을 많이 유혹했던 코코펠리(kokopelli)가 있다. 옛날 암석조각에 나타난 코코펠리는 허리가 굽어있고, 피리를 불고, 커다란 성기(性器)를 갖고 있었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조각의 성기를 제거하였다고 한다. 多産의 상징으로 애를 낳지 못하는 부인들이 원하는 인물이었으나, 처녀들은 겁에 질려 그에게서 도망갔다고 한다.

애리조나, 유타, 특히 콜로라도 플래토(Colorado Plateau)에 있는 지역을 여행했다. 애초에 이 지역은 바다로 덮여 있었지만, 약 6천만 년 전에 지진과 함께 지각의 융기로 콜로라도 플래토가 형성되고, 그 이후 침식작용으로 이 플래토에 많은 국립공원과 National Monument가 생겼다. 우리가 여행한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성 황무지였으며, 다른 특징은 나바호 '인디언 국가'에 들어 있는 지역이었다.

우리들이 다녀 온 곳을 대충 순서대로 간추려 본다.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 CA: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공원에서 유카(Yucca)의 일종인 수많은 Joshua Tree를 보았다. 모르몬교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팔을 벌려 우리를 반겨주시는 여호수아를 상기시킨다고 하여 Joshua Trees로 불린다. 이 외에도 높고 낮은 화강암으로 된 바위산을 보았다.

세도나(Sedona) 지역, AZ:
애리조나의 피닉스와 Flagstaff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다. 그 정기가 흐르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세도나에 가봐야만 느낄 수 있다 하겠다. 트롤리(Trolley)를 타고 Boynton Canyon 주변을 돌며 관광했다. 관광 버스로 기도의 명소 성심자 기도소(Chapel of the Cross)에 가려고 했으나 관광버스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Airport Mesa에 가서 구경했다. 사방을 둘러싼 붉은 사암(沙岩)으로 된 산, 기묘한 바위를 보았다. 뿐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과 함께 기가 강한 곳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곳 세도나는 지구상에 흐르는 강력한 에너지장인

이에 남부 시나구아(Sinagua) 인디언들이 암석조각을 조각했다. 1900년에는 백인들이 이곳에 정착, 후에는 소위 'The V Bar V Ranch'라는 목장이었는데, 1994년 미 정부에서 이 목장을 구입 했다. 여기서 V-V는 Verde 강이 흐르는 Verde Valley를 뜻한다. 이곳에는 1,032개의 암석조각이 있고, 다른 곳에 비해 이들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몬테주마 웰 (Montezuma Well), AZ:
세도나 가까이에 위치한 몬테주마 웰(샘)을 보았다. 이는 석회암 대지에 우묵 패인 368 feet의 넓이의 싱크 홀(Sinkhole)로, 하루 150만 갤런 이상의 물이 땅 밑에서 솟아올라 형성되었으며, 작은 운하를 이용하여 과거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살았던 아바파이(Yavapai) 부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 샘을 통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믿고 있다. 이 근처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시대는 약 1400년대 후반이었다. 몬테주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식민시대 유럽인들이 이곳의 거주지가 멕시코의 아즈텍(Aztec) 문명과 연계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해, 아즈텍의 황제인 몬테주마에서 명칭을 따왔기 때문이다.

Wupatki National Monument, AZ:
애리조나 Flagstaff 북쪽에 있는 인디언(Hopi)유적으로 100여개의 방을 가진 3층 건물겨우가옥과 종교의식에 사용한 키바(Kivas 또는 회의장) 및 원형 운동장을 보았다. 오랫동안 다른 문화 양식의 인디언들이 살아왔지만 11세기에 근처의 화산 폭발후 토양이 비옥해지며 많은 인디언들이 이곳에 정착했고, 약 800 년 전에는 이 근처에서 제일 큰 인디언 부락(Pueblo)이었다고 한다. 남자 인디언은 겨울이 되면 베를 짜고 있었다. 어느 호피 인디언의 수기를 읽으면 "물이 부족해서 한 방울의 물도 귀중했고, 목이 말라도 물을 아껴 마시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라고 한다.

Petrified Forest 국립공원, AZ:
애리조나 주 동부에 있으며 연간 강우량이 적어 불모의 황량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1) 석화(石化)된 거대한 화석(化石)의 나무들을 보았다. 약 2 억 년 전에 동북부 애리조나 지역은 적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커다란 나무들이 바람과 흩

수 등에 의해 뿌리가 뽑히며 휩쓸려 이곳에 모이게 됐고, 근처의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와 홍수에 섞여 흘러 내려온 토사들에 묻혀 버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부패로 없어버리지만, 드물게 나무 기둥들은 지하수와 함께 스며드는 광물질로 그 세포가 대치되며 화석화 되었다. 고대 동물들의 뼈도 많은데 그중에는 공룡들의 화석이 있다. 이 외에도 다음의 것을 보았다. 2) 같은 공원 안에 있는 일부의 Painted Deserts를 보았다. 3) 1250년경에 지은 인디언 푸에블로(Pueblo Pueblo: pueblo는 미국 남서부에 사는 인디언 부락) 유적과 이곳에 있는 직사각형의 키바(Kiva, 북미 Pueblo 인디언의 지하 예배장)를 보았다. 많은 경우에 키바는 원형이다.

페인티드사막 (Painted Desert), AZ:
애리조나 북동부에 있는 사막 지방으로, 그랜드캐니언의 동부와 Petrified Forest 국립공원 사이에 펼쳐져 있으며, 인디언 보호구역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막 남부 안에 Petrified Forest 국립공원이 있다. 선명한 빛깔의 층(層)을 이룬 암석 (Multi colored layers land)으로 유명하기에 '오색 사막'으로도 불린다. 빨강, 파랑, 하얀, 검색의 사암, 셰일(shale)로 이루어져 있다. 철(鐵), 망간(Mn) 등의 금속원소에 의해 이러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다.

캐니언 드 세이, Canyon de Chelly National Monument, AZ:

애리조나 동북쪽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다. 하지만 인디언의 후손들은 이 근처의 땅을 '나바호 국 (Navajo Nation)'이라 부르며 자신들은 나바호 인이라기보다는 'Dine'라고 부른다. 기원전 2,500년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0년 동안 여러 인디언 족이 계속 살아 왔기에 그들의 문화를 볼 수 있다. 마지막 인디언족인 나바호 족은 스페인인들이 올 때까지 1700-1863년 사이 이곳에 있다가 백인들 밑에 있게 된다. 이 캐니언은 나바호 인들에게 농사를 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이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도 있었다.

이 공원은 North Rim과 South Rim을 운전하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체력이 된다면 전망대에서 시작하는 오솔길(trail)을 걸어가며 볼 수 있다. 1,000 ft가 넘는 높이의 적색의 절벽 등 경관이 좋다. 시간이 있으면 나바호 인들이 운영하는 지프를 타고 하는 여행(Jeep Tour)을 하며 협곡 밑에서 그들 푸에블로 인디언 아파트 양식의 집터, 생활상, 농경상황, 그리고 인디언의 암석예술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나바호 인디언들의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는데 이 역사를 간단히 추려본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스페인, 멕시코와 전쟁을 치루고 19세기 중반부터는 미국과 싸움도 한다. 미국인들은 인디언의 땅 등 모든 것을 몰수 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로 생각하고, 얼마 후에는 인디언과의 전쟁을 했다. 1864년 수천 명의 나바호 인들이 항복하며 싸움이 끝났다. 나바호 족이 마지막 항전을 벌인 곳이 캐년 드세이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400마일이나 떨어진 뉴멕시코의 Fort Sumner라는 곳으로 강제로 끌어서 이주하는 동안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다 (먼 길, Navajo Long Walk). Fort Sumner에 갇혀 인디언들은 기아, 고독감, 굶주림, 이질 등 병을 앓게 되고 더 많은 인명을 다시 잃었다. 드디어 4년의 감금 생활을 끝내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소위 '먼 길'에 나섰던 나바호족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들만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바호 족과 관련된 다른 실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전쟁에서(다음면에 계속)

아리랑 타령

오태희 (64, 커네티컷)



일생에 처음으로 아리랑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본다. 누가 묻지 않았으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으리라. 하여튼, 그런 사람이 나 혼자서 아닐 것 같다.

아리랑 (我理郎)은 12세기 고려 말기에 원나라를 통하여 들어온 성리학(性理學)의 어휘이다. 성리학의 학문적 개념은 지금도 한국인의 윤리도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리랑을 나름대로 번역하면 '나는 최고의 사나이'라 할 수 있으며, 성리학자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정권다툼에서 밀려난 선비와 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리랑

이라는 말로 자존심과 자부심을 달라고 있었다. 그러자 신분이 한 층 아래인 지방의 향반과 관리들도 아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흉내 내기 시작하자 신분이 최상층인 선비와 학자들은 신분의 위화감(a sense of incompatibility)과 거부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전국에 퍼져나간 아리랑이 언제부터 노래가사로 변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아리랑에 쓰리 쓰리랑, 혹은 스리 스리랑과 같은 변형이 나타나고 놀이형으로 바뀌지게 된다. 한편 신분이 밑바닥 부류인 천민들도 시간이가면서 아리랑을 부르게 되니 지방의 향반이나 관리들 역시 신분적 위화감으로 아리랑을 부르지 않게 되고 말았다. 지식층은 점점 천민화 되고 세속화하는 아리랑을 완전히 외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후기형 아리랑은 서민적 표현이 특징이며 남녀의 사랑이나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의 아리랑은 일본에 대한 저항적 특징을 가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초의 아리랑으로 알려진 강원도 정선 아리랑은 아라리(我羅理*)와 아리랑 두 어휘가 어울려서 사용되고 '나는 멋진 사람, 아니면 나는 최고이다' 라는 뜻으로 변하여 남녀 구별 없이 부르게 되었다. (*나의 생각은 부드럽다.)

아리랑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정선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경기아리랑 등인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수백에 가까운 변형이 있을 정도로 즐겨 불려지는 이 민요는 후렴을 먼저 부르는 것이 특징이며 선비들의 고향 이름에 따라 아리랑의 이름이 주로 만들어졌다. 가장 많이 불리는 아리랑은 경기 아리랑(신아리랑)이다.

구한말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85-1949)가 아리랑 악보와 가사를 만들어 영문 월간지 'Korea News' 1896년 2월호에 실었다. 이것이 아리랑을 서양음계로 처음 소개한 문경새재 아리랑이다. 이때에 헐버트는 아리랑은 조선 사람에게 쌀

과 같이 없어서는 안되는 노래라고 하였다. 1926년 한국 최초의 장편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아리랑이 사용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로 자리 잡게 된다.

여담이지만, 1991년 미국에서 사는 동기동창 부부 마흔 명이 유럽관광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인스브룩 오스트리아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면서 그 지방 민속공연을 볼 때에 공연이 끝나면서 각국의 민요를 연주해 주었다. 기대하지도 않던 아리랑이 흘러나오자 우리 일행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 갈채로 환영하고 몇 몇은 무대에 올라 춤을 덩실덩실 추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의 위력을 처음 느꼈다.

끝으로, 지난 2008년 2월 26일,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가 김정일 동무의 초청으로 평양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다. 지휘자 Lorin Maazel이 동평양 대극장에서 아리랑 환상곡을 finale로 장식하자, 얼어붙었던 북녘 청춘이 생기를 되찾아 환호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전면에서 계속> 미군은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가진 나바호 언어를 이용해 군사암호를 만들었다. 이 암호는 일본군 쪽에서는 아무도 풀지 못할만큼 난해했다. 당시 'Navajo Code Talkers'의 활약은 영화 'Windtalkers'라는 영화에 잘 나타나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오지마(Iwo Jima) 탈환이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한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그랜드 캐니언에 못지않은 경치를 볼 수 있었다. 번두리를 운전하며 전망대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붉은 바위로 된 절벽, 계곡 밑에 있는 개울, 비옥한(?) 농토, 절벽 아래 움푹 파인 공간에 자리 잡은 절벽 푸에블로, 높이 솟아 있는 '거미바위'(Spider Rock)를 보았다. 이 외에도 본 것이 많지만 스파이더 락과 대학살 동굴 전망대(Massacre Cave Overlook)에 간단히 이야기 해본다. 계곡 한 가운데 첨탑처럼 홀로 솟은 800ft의 스파이더 록 위에는 스파이더 우먼(거미 여인) 神이 살며 나바호 인들에게 배 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라크네(Arachne)는 그리스어로 '거미'를 뜻하는데, 이 처녀는 수놓는 솜씨가 일품인 소녀였다. '거미'는 동양이나 서양에서 배 짜는 것과 연관이 된것 같다. 이곳이 스페인 령이었을 때 스페인 군대는 원주민들을 자주 공격했다. 1805년 스페인 군대가 계곡으로 쳐들어 오자 115명의 나바호족은 동굴(?)로 피신했지만 스페인 군대에 발견되어 모두 사살되었다. 이중에는 25명의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 되었다고 한다. 대학살 동굴 전망대에서 이곳을 볼 수 있다. 이때 한 용감한 나바호족 여인이 스페인 군인을 안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곳을 일명 '둘이 떨어진 곳(Two Fell Off)'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군의 왜장 게이무라로꾸스케(毛谷 村六助)를 유인해, 끌어안고 함께 남강에 떨어져 죽은 용감한 19세의 관기 논개를 연상하게했다.

Glen Canyon, Lake Powell, AZ:
1956년에 글렌 캐니언 댐(Glen Canyon Dam)으로 콜로라도 강을 막아 생긴 호수가 파벨 호수로 이 호수는 애리조나와 유타 주에 걸쳐있다. 형형색색의 기암괴석으로 이뤄져 있다. 1869년 John Powell을 대장으로 한 탐사대가 4척의 배를 타고 와이오밍 주를 떠나 그린(Green) 강과 콜로라도 강을 지나며 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글렌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등을 답사 했고, 이 캐니언의 이름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Powell은 남북전쟁 때 소령으로 참전했다 팔 하나를 잃

은 퇴역 군인으로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다 콜로라도 강 답사에 나섰다. 파벨 호수에서는 유람선을 탑승하고 엔탈롭 캐니언(Antelope Canyon) 크루즈를 했다. 배를 타는 동안 글렌 캐니언 댐을 보고, 매우 좁은 엔탈롭 캐니언을 지나가며 지질학적으로 복잡한 지형과 정말로 예술적인 풍경을 보는 것은 가관이였다.

모뉴먼트 밸리 나바호 부족 공원, Monument Valley Navajo Tribal Park, AZ:
그랜드 캐니언에서 동쪽인 나바호 인디언 자치구역의 북쪽 한구석에 있다. 나바호 인디언은 이곳에 1400년 경에 정착했다. 정착 후 다른 인디언과 다툼이 있었고, 1700년대에는 스페인, 멕시코와의 전쟁, 1800년대에는 미국 영토가 되며 미국인과의 수 많은 싸움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한 인디언들의 불행한 역사가 있다. 인디언들의 숭고한 성지기도 하다.

인디언 가이드가 운전하는 지프를 타고 포장 되지 않은 길을 달리는데 너무 힘들었고 먼지로 뒤집어 써우게 되었다. 인디언 가이드는 우리들이 묻기 전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일단 물어 보면 대답을 했다. 하지만 인디언 가이드가 일장의 애절한 인디언 노래(windchant)를 부르고, 피리 부는 것을 모두 묵묵히 들었다.

넓고 넓은 붉은 대평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암석기둥과 절벽언덕, 첨탑 등을 보았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방어리장갑 모양의 뷰트인 West Mitten Butte, East Mitten Butte이다.

아치스(Arches)국립공원, UT:
이 국립공원에는 사암(砂岩, 모래로 된 돌)으로 된 2천개가 넘는 화려한 아치(Arch), 첨탑, 절벽 등을 보았다. Delicate Arch, Balanced Rock, North/South Windows를 보았다. 세계에서 가장 긴 Landscape Arch를 시간이 없어 보지 못했다. 물과 얼음, 덥고 추운 일기, 바람 등으로 인해 사암이 깎이기는 했어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지하에 쌓여있는 소금(鹽)의 지층이 탄력성(elastic)이 있어 이들이 움직임에 따라 이곳에 있는 아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바위의 형상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캐니언랜드 국립공원, UT:
우리들은 주로 'Island in the Sky'와 국립공원 밖이지만 근처의 Dead Horse Point 국립공원에서 그린(Green)강과 콜로라도 강을 보고 동쪽에 멀리 있는 13,000 feet의 눈에 덮인 La Sals (스페인어로 소금, salt를 뜻함) Mountains 를 잘 보았다. 여기서 보는 캐니언의 경치는 정말로 장관이었다. 수많은 계곡과 계곡을 이루는 절벽을 보았다.

그린 강은 산소가 부족한 철(鐵)분해 의해 초록(green)색이고, 콜로라도 강(뜻: 붉은 색)은 붉은 색을 띄우고 있다. 이 두 강이 여기서 합류하여 콜로라도 강이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 John Powell이 그린강에서 시작, 콜로라도 강을 타고 그랜드캐니언을 탐험하였다.

캐피탈 리프 국립공원, UT:
사암(砂岩)으로 된 백색의 돔(dome, 반구형의 둥근 지붕)과 절벽으로 되어 있고, 미국 국회의사당과 비슷하기에 이 같이 명명되었다. 이 근처의 다른 국립공원은 강물의 물살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이 캐피탈 국립공원은 지하로부터 솟은 다양한 퇴적암으로 생성된 풍경이다. 19세기 후반에 모르몬 교도들이 진출하게 된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바위 모양을 보고, 모르몬교도의 작은 Fruita 학교교사와, Fremont 인디언의 암석조각도 보았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UT:
Ebenezer Bryce는 19세기에 이곳에 개척자로 온 모르몬교도였는데, 꾸불꾸불한 계곡에서 가축들을 몰고 다니었다. 그가 한 얘기로는 "이같이 좁고 꾸불꾸불한 계곡에서 가축을 잃고 찾기에 는 지옥과 같다"고 하였다. 이곳 사람들이 그가 살던 계곡을 브라이스의 협곡(Bryce's Canyon)이라고 부른 후로 이 공원의 이름이 되었다. 이 국립공원은 색(色)과 모양으로 유명한데, 산화철(酸化鐵)이 이곳을 붉고 누렇게 하였다. Sunset Point와 Sunrise Point사이를 걸으며 수만 개의 사암층 첨탑을 가진 반원형 극장을 보았다. 토르의 망치(Thor's Hammer)도 찾아보고, 센티넬(보초병, Sentinel)이라는 첨탑도 보았다. 토르(Thor)는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나오는 벼락의 신(神)인데, 이 신의 날 또는 토르의 날(Thor's Day)이 영어의 목요일(木曜日, Thursday)이 되었다.

자이언(ZION) 국립공원, UT:
초기 모르몬교의 개척자들이 이 거대한 조각과도 같은 바위들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이 사시는 약의 사원"이라고 믿고 이름을 시온 또는 자이언(Zion)이라고 불렀다. 브라이스 캐니언의 첨탑과는 대조적으로, 이 공원은 동그스름한 퇴적암에 빨강 및 갈색을 중심으로 흰색과 노란색이 어울려 있는 거대한 절벽의 연속이다. 내 의견으로는 장엄한 자이언 국립공원은 남서적인 공원으로 경주에 있는 석가탑과 같고,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은 다보탑과 비슷한 여성적인 공원 같다.

The Grand Canyon West Skywalk by the Hualapai Nation, AZ:
그랜드 캐니언을 South Rim, North

Rim, East Rim 그리고 West Rim에서 볼 수 있는데 이번 관광에는 Hualapai 인디언 자치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West Rim에서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랜드 캐니언 서쪽 이글 포인트(Eagle Point) 맞은 편 절벽에 설치된 말발굽 모양의 스카이워크는 절벽 끝에서 협곡 안쪽으로 70피트(21.3m) 정도 튀어나오게 만들었으며 바닥과 옆쪽 보호시설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그랜드 캐니언의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되었다. 마치 4,000피트(약1,219m) 상공을 걷고 있는 듯하다. '8'정도의 지진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조직적이 되지 못해 구경하기가 불편했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다. 버스로 라스베가스에서 약 2시간 45분(120마일) 걸려야 그곳에 갈 수 있는데, 일단 그곳에 도착해도 버스를 자주 바꿔 타야한다. 그랜드 캐니언을 잘 구경했지만, South Rim에서 보는 것 보다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그곳에서 인디언의 전통춤을 보았다.

라스베가스(Las Vegas), NV:
도박과 유희의 도시의 Excalibur 호텔에 묵으며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도박(슬롯머신)도 했지만 한 동기는 돈을 따기도 했다. MGM 호텔에서 K A라는 쇼를 감명깊게 보았다. 'Golden Nugget'이라는 호텔에 가서 커다란 '금덩이'를 보고, LG 후원의 Light Show, 이탈리아 베니스를 본 따 만든 Venetian Hotel을 구경하고, 그곳에서 '오 솔레미오' 등의 음악을 들으며 곤돌라를 타고, Bellagio 호텔의 분수 쇼(Water Show)를 보고 네온사인 불빛으로 빛나는 밤길을 걸으며 야경을 구경했다.

결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미남서부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식사하며, 버스 안에서, 여행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힘들고, 피로한 여행이었지만 구경은 잘 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후에는 좀더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도 해본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너무 많은 곳을 보고 싶은 욕심이였기에 때로는 '수박 겉 핥기'로 본 느낌이기도 하다. 그런대로 많이 보고, 지질학, 인디언 및 그들이 남긴 암석 조각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바위산을 깎는 장구한 시간과 거대한 공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소한 존재인가를 재확인하는 겸손의 교훈도 체감했다. 오는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남기며 헤어졌다. 모두들 하나 같이 으젓하고 점잖으면서도 원기가 있어 보였다.

1962년 의예과시절 여름방학이었다. 7월 어느 날 저녁 서영일과 나는 통금 시간이 다 되어서 청량리역에서 만났다. 배낭을 짊어지고 밤열차를 타고 일단 춘천까지 가고,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해안일대와 설악산대청봉을 거쳐 돌아올 예정이었다.

당시 성북동에서 임주가정교사를 하던 때다. 개인적으로 녀석지 못한 경제적 사정이었으나 너그러운 학부모의 허락으로 미리 담겨서 거마비도 받아 쥐고 가르치던 수험생(당시 K중학 3학년)에게는 절대로 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춘천으로 가는 길에 마석역에서 임윤명이 올라타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합해서 세 명이 같이 계획한 여행이었다. 대할실에는 늦은 탓인지 탑승객들은 없었고 노숙자들이나 술이 취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 안되는 나무의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신문지를 그냥 땅에 깔고 앉았다.

영일이는 당시 아주 여러 방면에 박식하였고 여행에 관하여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배낭 속에는 카메라, 라이터, 나침반, 쌀, 취사 도구, 고추장, 등등 필수품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그 위에 텐트와 지팡이까지 없어 놓았으니 내 배낭에 비하면 물건이 갑절이나 되었다.

자정이 지나 새벽 2시에나 기차는 떠나게 되어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 소주를 한 병씩 사서 마셨다. 구운 오징어를 안주삼아 찢어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기다리던 승차시간이 되자 등불이 희미한 보도를 지나 이미 기다리고 있는 빈 열차 칸에 올라탔다. 기차는 정시에 출발했다.

물론 우리는 남은 소주병을 바닥까지 비웠다. 하루 종일 내내 흥분했었던지 아니면 여행준비에 피곤했었던지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밤열차의 진동이 우리 몸을 몹시 흔들었다. 열차의 규칙적인 바퀴소리도 졸음을 더 부채질했다. 서군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먼저 잠이 들었다. 나는 한 시간 후면 마석역에서 올라탈 임군을 생각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래를 부르며 버텼다. 방랑의 김삿갓, 울고 넘는 박달재, 유치리나...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졸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나 10분이나 더 버텼을까 어찌된 일인지 나 또한 잠이 들고 말았다.

한편 마석역에서는 이곳이 고향인 임군이 또 밤이슬을 맞으며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배낭 속에는 쌀, 대구포, 오징어포, 병에 든 꿀뚜기젓 일흔살도 더 되신 할머니께서 애지중지 싸주신 식료품들이 들어 있었다. (이 효손 임군의 부부는 훗날 이분 할머니를 미국 볼리도에 모시고 와서 98세가 되실 때까지 수십년간을 모시고 살았음.) 기차는 예정대로 어두움을 뚫고 마석역에 도착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약속대로라면 열차창밖으로 한 친구라도 얼굴을 내밀고 "야 윤명아 여기야!" 하면서 손짓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안 보인다. 마음속으로 '이 자들이 타기는 댔는가? 괜히 올라탔다가 혼자서 춘천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출발기적소리를 알리니 할 수 없이 올라탔다. 1호차부터 덜렁거리는 칸 사이를 하나하나 건너 오면서 훑으며 걸어왔다. 텅 빈 열차다. 사람들이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몇 칸을 더 건너 중간 칸쯤 왔을 때 비로서 처음 사람이 보인다. 손짓을 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두 친구들이다. 이들은 둘 다 한창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반갑기도 하고 패심하기도 해서 반동적으로 두 친구들을 번가라가며 발길로 밟다 찼다. 그때 잠결에 얻어맞은 서영일군의 45년후의 말인즉 "잠결에 박격포탄이 눈앞에서 폭발하던 느낌이었다."

70년대 초에 생긴 영동고속도로도 아직 없었고 2006년도에나 생긴 미시령 터널도 물론 생기지 않았으니 지금 같으면 두 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양양행 버스는 하루 종일 달렸다. 힘

이니 그늘로 가라고 하였지만 그 충고를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나는 그대로 잠을 자고 말았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심한 화상으로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모기가 들끓었던 밖으로 나왔다. 숨 쉬기가 괴로울 정도의 2도 화상으로 몸 전체면적의 15퍼센트를 입은 셈이었다. 인정이 많았던 친구들은 인근 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없는 돈으로 연고를 사서 발라주었다. 그때

산세를 어지럽히는 여러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당시의 우리가 본 비선대는 아름다웠다. 하얀 햇빛을 반사하는 절벽, 빼박하게 그 절벽에 인간힘으로 뿌리를 박고 매달려있는 나무, 수만 년간 흐르는 물살에 씻긴 여러 모양의 둥근 바위들이 있었다. 맨발로 디디고 넘나들던 그 바윗돌들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흐르는 물은 맑고도 깨끗했다. 명경수 바로 그 물속에 담그면 발목이 시려왔다. 이름도 모르는 각종의 새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 왔다.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는 서정시귀처럼 자연과 더불어 노래했다. 그대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다. 물살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마음껏 즐거워했다. 향나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서 먹었다. 꿀뚜기젓은 계속 빨아먹어도 자국이 안 남고 고추장을 발라서 찌 먹은 대구포는 일미였다. 서군은 요리를 참 잘 했다. 밤이 오자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놀다가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세 명이 누워서 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잠을 청했다. 명산에 와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젊음을 만끽했다. 그리고 다음날 예정된 대청봉 등반을 생각하며 깊은 잠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날 밤 자정이 지났을 때다. 우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깬다. 가늘게 내리는 빗방울소리였다. 무심히 잠을 계속 잤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차츰 굵어진 빗방울이 폭우로 변해 버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눈앞의 비선대 계곡물이 심상치 않게 불어난 사실이다. 물살이 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되었고 불어난 물살이 텐트에 가까워 온다. 우리는 더 높은 지대로 텐트를 옮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살은 더 사나워 졌다. 그리고 비는 그 후 며칠간 더 내렸다. 우리는 영락없이 산속에 갇힌 것이다. 유일한 인가라고는 오백 미터쯤 하류로 내려가면 반대편 언덕에 삼점이 있었지만 우리가 있었던 이편에서는 연락할 길이 없었다. 험한 날씨 때문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었다. 인적이 끊긴 조난을 당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서 며칠간은 견딜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되었다. 안개로 뒤덮인 비선대 계곡에는 앞도 잘 안 보이고 사나운 물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렇게 사흘쯤 더 지났을 때 결국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살도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이제 식량도 바닥이 났고 심신으로 지쳐서 대청봉 등반은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줄어든 계곡을 건너 인가가 있는 하류로 내려가야만 했다. 텐트를 접어 짐을 정리하고 배낭을 짊어졌다. 하산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계곡을 건너야 한다.

서군이 제일 앞에서 가고 내가 뒤를 따라 건너기 시작하였다. 생각보다 물살이 강했다. 무릎쯤 물이 닿았을 때는 벌써 몸이 휘청거린다. 앞에 가던 서군은 잘 가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다면서 우리를 보고 상긋이 웃는다. "빨리들 오지 못하고 왜 빌빌하는가." 하는 눈치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다 떠나기도 전에 그가 옆으로 쓰러지더니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전쟁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반사적으로 우리는 뒷걸음으로 도로 나왔다. 떠나려간 그를 찾으려고 하류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세찬 무정한 물소리만 계곡을 채울 뿐이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의예과시절의 유명한 서영일 군의 조난사건이다.

우리 둘은 허탈과 (다음면에 계속)

친구여 대청봉에 올라가세

서윤석(68, 오하이오)

입은 상처가 아직도 내 대퇴부위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친구들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음의 증거이다.

우리는 하루 더 이곳에서 묵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신나게 놀았다. 캄캄해질 무렵에야 부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가 동네 입구로 들어오는 오솔길을 돌고 있는데 누가 느닷없이 어두운 숲속에서 총부리를 겨눈다. "정지!!! 정지, 손들어!" 한다. 다급해진 우리는 놀라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살려달라는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학생인데요." 하면서...



그들이 나와서 전지로 우리 얼굴을 비쳐보더니 너무 늦게 해안가를 다니지 말라고 훈계를 하고 간다. 이들은 바로 군인들이었다. 해안으로 침투하는 간첩들을 막기 위하여 잠복한 대한민국의 군인들이었다. 당시엔 아직 해안가에 철조망은 없었다. 몇 년 후 김신조 사건이 있을 후 철조망이 쳐졌다. 휴전선을 넘어서 금강산 온정리로 가는 길에도 해안을 따라 보기 싫은 철조망이 있다. 동해바다는 이제 전선이 되어 버렸다. 화진포를 지나 거진으로 고성군으로 올라가면 그 후에 세워진 통일전망대가 나온다. 이북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나온 실랑민들이 와 볼 수 있게 만든 눈물의 전망대가 화진포에서는 10분 거리에 있다.

며칠을 화진포에서 보내고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 왔다. 속초에 도착하여 내설악으로 가기위하여 설악산 입구로 떠나는 버스를 탔다. 설악산 입구에는 두세 군데 여관과 음식점이 있었을 뿐 요즈음 같은 문화시설은 없었다. 신흥사가 오른쪽으로 코앞에 있었던 것도 모르고 우리는 절구경은 안하고 배낭을 메고 직접 비선대로 올라갔다. 비선대로 가는 길에는 개천이 나왔고 돌과 돌을 디디면서 건너 갔다. 계곡을 돌아 비선대 근처에 다다르니 조금 못미처 작은 삼점이 있었을 뿐 한적했다. 나이가 지극한 노인부부가 일용품을 팔고 있었다. 삼점을 지나 더 올라 가니 비선대가 나온다. 절벽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검은 바위가 누워있는 굴이 있었다. 한때는 호랑이들이 멸종하기 전에 살던 곳이란다. 후에 생긴 흔들 다리도 아직 없었다. 우리는 그 계곡 물을 건너 검은 바위 옆에 텐트를 쳤다. 요즈음은 불고기냄새, 쌍화탕 냄새를 피우며

한 산길을 타이어를 바꿔가면서 오르락내리락 꼬불꼬불 달려야 했다. 작은 고을마다 자주 서면서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타거나 계란꾸러미나 닭, 토끼 몇 마리를 묶어서 가지고 왔다. 장터에 가서 팔려는 사람들이다. 버스는 포장도 안 된 험한 도로를 털털거리며 계속 달렸다.

아침에 춘천을 떠나 저녁이 다 되어서 긴 여정 끝에 동해바닷가 양양에 도착하였다. 양양에는 낙산사가 있어서 다음날 아침 본당에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강릉 경포대도 들렀다가 점심때가 다 되어서 휴전선 방향으로 북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우리가 보고 온 이 낙산사는 육이오 사변시에도 전소되었다가 얼마전 이유모를 산불로 또다시 전소되어 가까운 문화재가 손실되었던 절이다. 전쟁 중에는 밀고 밀리는 전선의 이동으로 휴전이 되자 양양은 38선 북쪽의 도시였었는데 이젠 자유 대한민국의 땅이 되었다. 경기도 개성이 불행하게도 그 반대로 되어 많은 실랑민을 남긴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

북으로 달리던 버스는 화진포에서 멈추었다. 그 이상 북쪽으로는 일반인은 갈 수가 없다. 휴전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당시의 화진포는 해수욕장으로 아주 깨끗하였다. 아직 사람들의 왕래는 드물었다. 해변에는 해녀들이 자신들이 직접 따온 전복이나 해산물을 들고 팔려고 다녔다. 이승만 별장, 언덕위의 김일성 별장, 연못가의 이기봉 별장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별장이 산 밑에 있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조용한 연못(화진포)가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해엄을치고 있었다. 푸른 하늘과 떠도는 하얀 구름이 잔잔한 맑은 물속에 비치고 그 구름 사이로 물고기 떼들이 물살을 일구며 놀았다. 삽이나 도끼로 물을 내려치면 심장이 약한 물고기는 그 충격으로 놀라서 기절하게 되어 물위에 떠오른다. 은색 배를 내밀고 물위로 떠오르는 기절한 물고기를 건졌다. 그 살을 떼서 즉석 사시미로 초고추장에 찍어먹었더니 그 맛이 천하일품이었다.

오른쪽 언덕위에는 이화여대 별장이 있어서 오기전 부터 최소한 몇 명의 아리따운 여대생들이 수영복차림으로 해변에 나올 것을 기대하였었는데 막상 와 보니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머무르는 며칠 동안 아리따운 여대생은 커녕 여대생 비슷한 사람도 본 일도 없었다. 실망하였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푸른 동해바다의 파도를 타고 놀다가 수영을 잘하는 두 친구는 앞에 보이는 작은 섬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떠났다. 나는 졸음이 와서 백사장에 누워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잠을 자게 되었다. 친구들은 오랫동안 햇볕에 누워있으면 심한 화상에 걸릴 것

뉴욕과 워싱턴 디씨에 사는 아이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머니 날 온다는 전화를 받은 아내가 흥분해서 동분서주 우왕좌왕 갈팡질팡했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잘 침실 화장실 등 청소하랴 음식을 준비하랴 비상이 걸린 것이다. 언제나 아이들이 온다는 전화는 비상 벨 이고 동시에 대청소 혹은 특별 검열 날이다. 아이들이 동지를 떠난 후로 노인 둘이서 살기 때문에 평소에는 집안 청소엔 신경을 끄고 산다 누가 들릴 일도 없고 몇 주가 지나가도 그날이 그날이니 게을러서라기보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다.

나도 아이들이 온다는 기별이 오면 우선 반가운데 침실이 넘은 아내가 상전행차를 준비하듯 뛰어 다니는 모양이 안타까워 한마디씩 한다. 평소 우리 사는 대로 보여 줍시다의 의미의 말인데 실은 내가 아내의 대청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가 귀찮아서 작전상 하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대개 그런 경우 나는 아내에게 혼이 난다. 오십년 가까이 살다 보니 아내는 내 속셈을 꿰뚫고 있어 나는 본전도 못 찾는 것이다.

아내는 며느리들에게 좋은 주부가 어떻게 사는지 모범을 보여주려고 며느리에게 흠 잡히기 싫은 것이다. 그러자니 화장실 변기가 번쩍 번쩍할 때까지 아내는 닦고 문질러야 직성이 풀린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들린다 하면 며느리에게 비상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온다면 시어머니 비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배가 고프니 점심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내는 상기된 얼굴로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면서 나보고 부엌에 가면 전기 레인지에 국수 삶은 물을 올려놓았으니 하이로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점심으로 국수를 삶아 줄 터인데 자

기는 청소에 바쁘니 부엌일을 거들어 달라는 뜻이었다.

마지못해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전기 레인지 위에 두 냄비가 나란히 올라와 있고 둘 다 얇은 불에 켜 있었다. 나는 생각없이 둘 다 하이로 스위치로 돌려 놓고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조금 있으니 음식이 타는 냄새가 거실에 까지 진동을 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한데 탄 냄비를 열어보니 스파게티 소스였다. 물 냄비만 하이로 올릴 것을 두 냄비 다 하이로 올렸으니 스파게티 소스가 견디어 낼 재간이 없다.

아내가 이층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말고 뛰어 내려 왔다. 나는 꿀 먹은 벼어리 신세가 되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내의 얼굴이 벌개지더니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느 냄비가 물 냄비인지 확인을 하고 스위치를 돌려 놓으라... 그 간단한 일도 맡길 수가 없으니..." 언성이 차츰 높아졌다.

나이 들면서 아내의 언성이 차츰 높아져 가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늙으면 남자가 죽어지 내야 한다는 새 도덕률을 따르다 보니 언젠서 부터인지 아내의 언성이 한 옥타브쯤 높아졌다. 여자의 음성이 집밖으로 나가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어른들 말씀이 아직도 내 귀 언저리에 남아 있는데.

뭐 편 놈이 성 낸다고 실수는 했지만 나도 화가 났다.

첫째, 아이들 온다고 아내가 내 점심보다 화장실 청소엔 더 신경을 쓰

는 것이 못마땅했고, 둘째, 늙는 것도 슬픈데 남편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나는 밀려나는 것 같아 나더러 간 큰 남자라고 하겠지 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앞으로 당신이 실수할 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거야 하고 가라 앉은 목소리로 침을 놓았더니 그제야 아내가 수그러 들었다. 부엌에서 벌어지는 실수는 아내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내가 암시 했고 아내는 내 말을 바로 알아차린 것이다.

아이들이 도착했고 그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내외는 표정 관리에 신경을 썼다. 교회에 나갔더니 어머니에 관한 설교가 있었고 이어서 노래 어머니 마음을 합창했다. 노래 일절이 끝나기 전 '하늘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라는 구절에 이르러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내 목이 메어 노래를 잊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수건으로 내 눈을 닦고 흐느껴 우는 아내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노래 반주는 계속 들리는데 목소리는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었다. 예배실이 온통 울음 바다였는데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슬피 우는 것 같았다. 아내도 네 아이의 어머니. 자식을 키워보니 돌아가신 장모님의 사랑이 떠올라 뼈가 저렸으리라. 그 누구도 어머니의 사랑을 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부터 내리 사랑이라고 하여

여행자금을 마련하는 전보를 임군이 서울에 보내서 전신환으로 속초우체국에 돈을 찾아오는 날이 되었다. 임군이 서군을 돌보게 하고 나는 마친 속초로 나가는 트럭이 있어서 올라탔다. 속초에서 전신환을 현금으로 찾고 그 돈으로 우선 담배 한 갑을 샀다. 열 개피가 들어 있는 사슴 한 갑이다. 속초에서 설악산 입구의 여관까지는 그 때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다. 다른 교통편이 없었다.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이는 한 여름이었다. 기다리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빨리 걸었다. 그리고 물론 담배도 한 개비씩 물고 걸었다.

내가 막상 여관에 돌아 왔을 때는 아홉 개피는 피어버리고 갑속에 다만 한 개피만 남아 있었다. 남은 담배를 그 갑재로 주니 그 마지막 한 개피를 서로 사이도 좋게 번갈아 가며 나누어 피길래 미안한 마음을 거두고 나는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차비도 생기고 서군도 거동이 좋아졌다. 물에 떠내려간 배낭은 물론 잃어 버렸고 그 때 찍은 모든 사진들도 다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후일 물이 다 빠진 후 아는 등반대원들이 하류의 바위틈에서 발견된 배낭을 찾아 돌려받았지만 내용물, 특히 카메라 등은 모두 파손되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10일 예정이 2주가 더 지나서 구사일생으로 서울로 되돌아오는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두가 지나간 젊은 날의 옛 이야기들이다. 일기해보나 등산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준비를 못하고 대청봉을 오르려 했다.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조난사고는 우리로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들

불효의 죄를 덜려고 했고 때때로 울음보따리를 털어 그 죄를 덜려고 한다. 목사님의 어머니 날 설교와 신도들의 찬송 모두 훌륭했지만 정작 모두를 울린 것은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였다.

때때로 혼자서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내 불효를 뒤우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지만 길어야 몇 초 동안인데 오늘처럼 공개 장소에서 울어 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아마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 때에 아버님이 었드려 그토록 통곡하시던 기억이 난다. 내가 나이가 드니 이제야 아버지의 통곡을 알 것 같다.

아내도 어머니다. 아침에 스파게티 소스를 태웠다고 내게 퍼붓던 아내를 내가 독하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아내도 어머니라는 생각 앞에 붉은 녹듯이 녹았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독해질 수 있다. 골프장에 있는 어미 거위가 내가 새끼 걸음으로 다가가면 새끼를 막아서서 '각' 하고 소리를 내며 눈을 부라리던 모습이 생각난다. 어미 거위는 제 새끼가 위험하다 싶으면 제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태고 예외다. 인구의 3%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온갖 몹쓸 짓을 하고 다녀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분이 있다는 믿음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내가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있다는 믿음이 어머니다.

천상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싶은 어머니.

이다음 세상을 떠나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어머니.

나이 칠십이 넘어서도 생각날 때마다 눈물부터 나는 어머니.

일이 있은지 몇 년 후 비슷한 이유로 여덟 명의 꽃다운 여대생들이 몰살한 사건도 있었다. 우리처럼 산속에서 갑자기 불어난 계곡의 몰살을 서로 꼭 손을 잡고 줄을 서서 건너다가 지도 교수와 함께 모두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요즈음 설악산에는 등반객들이 줄을 이어 선다. 단풍이 우거진 가을철이면 더 그렇다. 우리가 생사를 해매던 비선대의 계곡에는 얼마 후 흔들다리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등산객들에게 편리한 시설들이 세워져서 마시고 먹고 싸고 쉽게 즐기고 가게 한다. 숨 막히는 도시문명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잠시나마 즐기려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파괴적인 매연가스의 입김을 산으로 가져와서 산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런 비선대를 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보았다. 내설악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낯선 사람들이 수 없이 소매를 스치며 오르락거릴 때 나는 무척이나 그 이유도 모르는 외로운 향수에 젖어 있었다.

그때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귀중했던 반세기의 시간들은 어디로 순식간에 흘러갔을까?

40여 년간의 지난 세월 속에서 이처럼 변해가는 산의 모습이 나를 안타깝게 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 아름답던 옛 산의 모습을... 친구여 친구여, 우리 또 올라가 보세, 대청봉으로...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 번 또 올라가 보세.



임 낙 중(59, 메릴랜드)

<전면에서 계속> 공포에 빠졌다. 그당시에 우리는 그가 완전히 실종 되었다고 생각했다. 천만다행으로 그가 살아남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그는 떠내려간 후 500미터 하류에 있는 상점에 놀러왔던 청년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영일이는 넘어지자마자 배낭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바위와 부딪치면서 자맥질을 하면서 떠내려왔다. 평소에 그는 수영을 잘 했었기 때문에 고생 끝에 한 바위를 보고 매달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그를 구해낸 상점에 놀러왔던 이 젊은이는 노인 부부의 조카였었는데 여러 날 만에 날씨가 좋아져서 밖으로 나와 물가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사람의 머리가 떠내려 오는 극적인 장면을 대하게 된 것이다. 그 어찌 우연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던 서군은 편안한 자세로 방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평안(平安)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모든 고통을 잊고 다시 태어나는 희망(希望)의 노래, 천사(天使)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다. 귀를 귀울렸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못보다 더 고운 백합화...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큰 뜻을 내 알 듯도 하도다...)

"이것은 천사의 목소리다. 나는 살아 있는가? 죽어서 천당에 있는가?" 하며 서군은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것은 바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삼점을 하고 있었던 노인부부가 서군을 위하여 부르던 기도의 찬

송이었다. 눈을 떠 보았다. 그리고 깨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양 볼에서 줄 줄 눈물이 흘러내려 배개를 적셨다.

기적같이 소생한 그는 상류에 아직 남아있을 우리들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서군은 지팡이를 짚고서 젊은 이와 같이 저녁 무렵에 물가에 건너편에 나타났다. 시끄러운 계곡의 물소리에 서로들 말은 안 통했지만 몸짓으로 우리들에게 건너오지 말라고 당부한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요구했다. 다시 상점으로 내려간 젊은이는 건빵을 뜯어 매달아 던져 주었다.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건너온 건빵으로 그날 요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바위 사이 호랑이굴에서 그 밤을 보냈다. 우리가 사용하던 텐트는 그의 배낭과 같이 떠내려간 것이다.

하루가 더 지나니 물살이 아주 순해졌다. 등반대원들이 올라왔다. 빗줄을 매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들이 매놓은 줄에 의지하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디디면서 간신히 계곡을 건넜다. 이처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조난사고로 인한 공포 증상이었다.

설악산 입구로 내려온 우리는 타박상으로 고생하는 서군이 거동이 가능할 때까지 며칠간 함께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관에 투숙은 했으나 문제는 여행자금이 바다인 것이다. 여관비와 서울로 올라갈 차비가 문제다. 또한 나는 가정교사를 하는 집에 도착이 늦어짐을 알렸다. 후일이 학생이 다른 이유라고는 할 수 있지만 원하던 상급학교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나의 불찰로 그리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미안하기 그지없다. 가정교사로서 내 책임을 다 못한 것은 아닐까 하면서 늘 가슴 아파하지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행자금을 마련하는 전보를 임군이 서울에 보내서 전신환으로 속초우체국에 돈을 찾아오는 날이 되었다. 임군이 서군을 돌보게 하고 나는 마친 속초로 나가는 트럭이 있어서 올라탔다. 속초에서 전신환을 현금으로 찾고 그 돈으로 우선 담배 한 갑을 샀다. 열 개피가 들어 있는 사슴 한 갑이다. 속초에서 설악산 입구의 여관까지는 그 때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다. 다른 교통편이 없었다.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이는 한 여름이었다. 기다리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빨리 걸었다. 그리고 물론 담배도 한 개비씩 물고 걸었다. 내가 막상 여관에 돌아 왔을 때는 아홉 개피는 피어버리고 갑속에 다만 한 개피만 남아 있었다. 남은 담배를 그 갑재로 주니 그 마지막 한 개피를 서로 사이도 좋게 번갈아 가며 나누어 피길래 미안한 마음을 거두고 나는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차비도 생기고 서군도 거동이 좋아졌다. 물에 떠내려간 배낭은 물론 잃어 버렸고 그 때 찍은 모든 사진들도 다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후일 물이 다 빠진 후 아는 등반대원들이 하류의 바위틈에서 발견된 배낭을 찾아 돌려받았지만 내용물, 특히 카메라 등은 모두 파손되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10일 예정이 2주가 더 지나서 구사일생으로 서울로 되돌아오는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두가 지나간 젊은 날의 옛 이야기들이다. 일기해보나 등산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준비를 못하고 대청봉을 오르려 했다.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조난사고는 우리로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들

2012 Annual Convention

일시: 2012년 1월 20일~22일 (금~일)

올랜드, 후로리다(호텔: 추후 발표)

최고의 호텔에서 최상의 음식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반가운 동문들과 함께 즐기며,
영원히 기억하실 추억의 행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Post-Convention Western Caribbean Cruise

2012년 1월 22일~29일(일요일~일요일)

Port Canaveral-Haiti-Jamaica-Grand Caymau-Cozumel-Port Canaveral

Royal Caribbean 회사의 'Freedom of Seas'는 Ice-Skating rink, Rock-crumbing, Surfing pool, Ground geysers, Cascading water falls 등을 갖춘 사천사백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만 톤급의 거대한 초현대식 크루즈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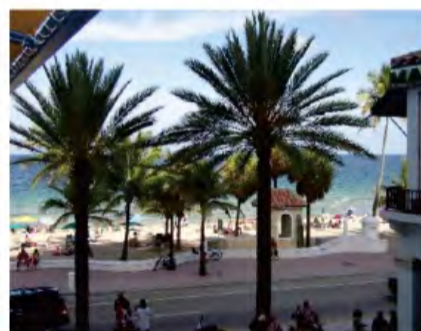
동승동 마로니에 교정, 낭만의 학림다방, 연건동 함춘회관 등 즐거웠던 학창시절을 함께한 동기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과의 뜻 깊은 reunion 행사를 많은 선후배 동문 및 가족들의 축복속에서 함께 즐기시길 않으시겠습니까?

Cruise ship의 registration deadline(Aug. 10)이 촉박이 다가 왔습니다.

침부된 여행신청서를 이용해 마감일 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동문 및 동기분들께 연락하시어 모두 함께 만남의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2012 Convention Committee 일동 배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lmaa@yahoo.com